

答



United Kingdom

형 공 서 기

발는 사랑

To

To Mrs. Young Soek Park
C/o Mr. C. Bowyer
162 Chesterton Rd
Cambridge CB4 1DA



FOLD HERE

[illegible]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나 (가끔씩 차분) 공백한 것은 아니지만
지 볼수록 보우, 나는 그렇게 + 4로 만들었고, 그럴 때 - 2로
지내 하지만, 6월 초에 정해제인 지역, 리서 2세 (11월)
다! 이 항공서간에는 아무것도 붙지 못합니다.
2013년 6월 11일 - 1000

이 항공서간에는 아무것도 넣지 못합니다.

2001/2/22
enclosure permitted

6. B_2 - 100%

영숙이, 새벽 1시 10분 (6.4.2) 잠이 오지 않아 편지 쓰기로
했는데 새질려는지. 아무리 보아도 여성지영구와 길은 헤어지 않고
바르그런 중개사 필요하면 기록이겠으나! 전라 편지 등으로 생활을
진작, 그러나 진작 대학에 유대해야 할 것을 불쌍하지 못해 떠났으나
지금이러도 꼭 필요. 여러가지 환경 문제가 복잡하게 이해할 수 없게
특별위원장을 택드군. 그분은 차분한 세산자네! 생일이 딸로는 6월 연
은 10월 이라고 한다는데. 후지은 거지 자리가 없오 자기 치성 구성이 원
하는 아이네! 환경 문제는 날로 혼란 될 것인데 각오해서도 뭐가든 부흥
러 위치는 되어 출근, 생활 그제저녁 일부러 찾아와서 정답이 된
연두리 잠시만 이야기 하고 갔는데 그중 하나는 정답이 된, 그리고 영
신전, 그는 정답이 된게 크게 분개해서 직접 나서 싸움의 뜻이요!
그러나 오늘 아침 하두 소식 없기 정답이 된 전화했드나 문건을 전어로
이른해 우리는 알겠드나 강경하든 모양, 끈기 죽권까지 나가거나
인데 내 보기도 정답이 된 것 같고요, 좀 더 동적인 인생, 그리고 아이
들의 들치기 많이 봐주와, 현재 해방이든 어느스럼하게 대처 하든
물론은 아이들 맞선 의무도 없는 모양 그러나 정답이, 그래서 실제로
선명치 않아요! 그리고 물론의 직감도 구멍이 긴 것 같지 않소
대체나 어쨌, 화선기라든 판치는 면서도 그이 영 향으로 변동
기치는 4,5일 정도, 할거 없기 2,3일 전 또 강한 버러 부치기
그래서 영기. 특히 코스 하기로 했드나 7월 4일 6월 12일
도 여러 등후하에 공복화하든 시달, 늦게 오고 늦게 지는 것은 어쨌
단 매일 10개씩 구광치로는 하로 불려온 눈가 있고 화복이 이위로
더디다는 것. 밤은 여전히 토익 하고. 아직 내 간담이 될만한 모양.
눈 별이상 있고. 무지한이 심장은 별신고 있고. 모든 것의 행
다음주엔 이 학기 끝. 다음학기도 꼭 해달라든다. 존심까지 권집
자업을 부지 내향도 있고 출판사의 차세기 불발도 있고, 그러나
출판사도 심고없이 조판사 해다가는데 정답이 된 거야 이벤트가
없어져. 정화. 재권. 자신(차분) 그리고 아이 등등.
나는 당신이 참보한 시간 갖고 자살, 권분서로 하고 그리고 이해한
법기판 많은 환경에 집중했어라 하오. 여기와서 이쁜 환경
지방 그냥 무사분수. 구월수에 오르는 등이 거절 할만한 것은 권분

김영삼 광주 방문 때에 代表者으로 몇가지 요구를 했는데 이전에 제 1호건으로 내세웠던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를 후퇴시키고 타협적 대안만을 제시한 형편이요.

우리씨의 ~~판단~~ 판단은 당신이 아무런 다른 생각을 말고 자금을 공부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판단이요. (좀 뒤고) 지금 특별히 거명되는 것은 듣지 못했으나 타제가 나오면 좋을것 없다는 느낌이요. 안상임씨의 의견은 결코 15대에 대한 태도를 확실하게 하라는 뜻만은 아니요. 이상덕이는 정임이가 며칠에 걸쳐 연락하다가 간신히 오늘 아침 통화했는데 공부좀 하느라 있어서 바쁘다고. 5월 or 6월 program은 4월말이 되어 안다고. 그리고 이해찬씨가 직접 통화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했오.

나는 당신이 떠난후 곧 이해찬씨. 상덕씨에게 대개 다음과 같은 말을 분명하게 했오

"내 보기에는 짐사감의 민주당 안에서의 역할은 끝난것 같소. 그러나 그 당이 입당할 때에는 김대중씨와 직접 연계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그에게 가서 당신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듣고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과, 그것과 상관없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종전하는 사건이 절대로 필요하다는것을 말했는데 이것은 내 개인의 견해만이 아니라 우리집안의 일차원 견해였소. 본인은 일단 김대중씨를 만나서 태도를 결정할 것이나 15대에 대한 태도는 유보한 채 떠났오. 그러므로 국내에서의 사후처리 문제는 당신들이 의논해서 잘 처리해 주시오" 라고 했다는 기억이요.

당신의 정치생활에 대한 미래는 유보하고 있으나 나의 태도는 분명히 부정적인 것을 확인시킨 것이요. 그밖의 분위기에 대한 견해는 재권자에게 들으시오.

국제, 편을 이기려는 것은 무슨 말을 써야 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사회주의. 또 사회와 별로 만나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
 어쨌거나 현재의 상황은 U.S.가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질적인
 개혁이 아닌 내지는, 누구도 U.S.의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어요.
 (특히 아시아) 만일 어떤 이론적이든 무엇이든. 어쨌든 여-야 스코트-로가
 뒤집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여론상의 위치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인 연설에서 민주당의 U.S. 개혁에 관해서는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북국시의 "이제는 여-야가 아닌 보-로가
 정계가 지배되어야 한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느낌상
 1년 내외에 중대한 정계 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나
 민주당이나, 남북국시 국정에 따르면 이쪽쪽 장난이 아니라.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 (특히 U.S.가 politician들은 정말로 많은 신명 같은
 보려는 상황. 그래서 청원서-행동부가 initiative를 취하고 있는)
 여-야는 어쨌든 보인 혹은 총선의 모양새가,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예상외로
 생동적일 것. 상당히. 연애하느라 (!) 세상이 보라빛이라, 더 구체적인 생각은
 우리 많아요. 좀 더 구체적이게 살펴볼까요, 잘 준비하러 올게요. 뭐.

— 재원이 이야기에 대한 저의 마음 —

화선이가 토요일 오후에 왔어요. (재원이가 보든 식목일 오후라고 함)
 오전에 우리셋이 작문집과 심포지엄 갔고, 오후에 왔는데 느낌이
 편안했고 귀엽고... 아버지는 우리 모두 당황할 만큼 이야기를
 전전시켰는데 본인들은 차라리 편했다고 해요. 화선이가
 내년엔 졸업, 재원이 대학원 입학이나 하고 결혼해서 좀
 같이 살다가 귀파로 유학 보내고 뒷바라지는 우리가 해주고
 재원은 철학박사 되서 교수나 하고... 대충 이런 틀을 잡았어요.
 아침 7시반 class에 등록해서 며칠이라도!? 했더니 두주째 다니고
 있고 일주에 서너번 만나고 보세 토폴리언 같이 보자고 해서 당황하고
 있고. 표정이 편해지니 옛날에 귀여운 모습 되 살아나 뿔타가
 나니 세상에 별일도 있구나 하는증 이죠.

환경공부는 꼭 하시오. 한 시민으로 살 전제로 할때 어떤 형태로나 유명세를支撐해야 할 텐데 그 thema는 앞으로 계속 점점더 요청될거고 당신은 그면에서 원문가으로 대응받게 될터나. 밤급 넷이서 리덕 먹고 나서 이런지 계속하고. 영국이 꼭 잊으라는 고집은 있는데, 만일 미국가서 유학할 기회가 있으면 그글기도 좋소. 하여튼 10주 Course는 등록하고 보시오. 오늘 전화 받은대로 후. 라기사 그리고 22등이 더 한 문제는 허락하도록 하지. 이제 형원까지 넓기겠소.

화선이에 대해서 —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연니 (3세 시생이라함)와 살고 있고 오빠 하나는 Alaska에 연차원으로. 또 하나의 오빠는 건강이 나빠 지방에 (?) 살고 있다고 하니 조건으로 보면 제천이가 팔릴것 없고 머리로 좋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단지 빨리 수술하려고 치과 다구치고 있어요. 둘이 매일밤 (못만난날) 전화하고, 혜영이가 "삼촌 전기 통해요? 하니까 일흔팔개지며 그렇대요.

집안일은, 아버지는 70일 설교, 4.19참배, 강의(매주 목요일), 한 두 번의 사람만남 등으로 쉴새 없이 일하시고 디스크가 심해서 이제 영동세브란스 모시고 갔었는데 검사, 검사, 평온하고 자처서 돌아왔지요.

가영이 서경대에 임용되어 안씨 잔치 (5월 10) 할 예정 (우면동에서)이고 정희는 그럭저럭 또 일하기 시작. 두삼촌은 아직 조용하고 저는 지난주 (100) 이사하고, 신경쓰고 극도로 파곤했었는데 이제 좀 괜찮아요. 그런데 29일 일본에서 온다니 신경 쓰여져요. 우면동에 가서 아빠 혼자 계시는데 아무소리나 해 댈까봐요. 지영아빠가 제게 절대 방해 안하고 내 마음돌릴 기회를 주겠다고, 형의 별거 형식이라고 했으면서도, 결국 폭력 행사 했었고 혜영이도 흥역을 치렀어요.

그편하고, 힘든과정 거치고 이렇게 나왔으면서도 편안해 잠깐 별루 없군요.

7/13 제7층

①

1993. 7. 4

오늘 DJ가 돌아온다는 전제로 신문들마다 크게 기사화 해 오고 있는데
오늘 이미 돌아왔을것이고. 이제 비교적 자주 모이는 소규모 모임에서 일분자다
한달만에 돌아온 안상임씨를 만났는데 그의 이야기는 대충 다음과 같은
것이었고, 자신이 정당에 받을 디터 동원것은 순전히 박선생 때문이었다고
그와 더불어 여성의 몫을 받고 확대해 가자는 것이었는데 일단 그일이
카탈된 것은 유감스러운 것이나 아작은 제곱해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대통령을 재정비 해서 최고위원에 지도전해 복수도 있지 않겠는가. 박선생이
최고위원과 15대에 반드시 뜻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직도 당무로
머물러 있거나 만약 박선생이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자기는 당장
사표를 내겠다. 그것을 알려주면 좋겠다. 이^회원이 여특에 사표를 낸 것은
복심이 아닌 보다 전과히 하려는 제논주어는 분다 이 가리에 계획은
세우고 공복을 한하는 것은 image 관리상으로 보아도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
할수 있다... 등등이었다. 지난번 한겨레 신문에서 정계에 있던 여성들의
현장을 소개하는데 당신이 Cambridge에서 환경연구에 몰두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사저널에서 또 다시 그것을 취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문의를 해 왔는. Cambridge의 무슨 대학? 또 환경의 어느 분야 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정임이가 전화를 받았는데 college는 김선생이
했던 바로 2대학이었으므로 만다고 했고 환경의 구체적 전문 분야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하오. 내가 가장 통일전반 제정 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인데 바로 이제 환경을 다루는 서울대 교수가 통일을 전제로 한
환경 문제를 다룬 발표를 했기에 당신에게 사교에 도움이 되기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것을 복지도록 했는. 석사논문이거나 리어한 무슨 의무를
가면 논문을 써야 할때 그런 제목을 상상해 두는것도 좋을듯 해서.

전화로 말한대로 이해찬 의원은 인지 않고 신문에 개혁정계모임 그룹은
임채성이 ~~이~~당 당신의 그자리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있고 연주는
세화대로 이해찬 의원이 맡았다고 들었는. 그리고 당신의 만대로
8월부터 회의를 보낼것이고. DJ가 돌아오는 것으로 민주당의 기류는
최소한 추측기사가 널널하고 있는. 그러나 결론은 그의 영향력이 정제를
하는것이라는 이전에는 알지 못한. 신문대로 라면 - 나에 아파트를

안했다. PS, 이상덕씨가 11월 미국 가는것은 최형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일단 귀국해야
비자를 받을수 있는데 먼저 그렇다면 포기 해야되. 좀더 자세히 알아 봐서 말기
것이오)

현 정부는 전자 내부에 ② 불평화음 소식을 언론이 전하고 있는. 청담에
자세에도 불평화음이 있다는 기사도 공공연히 살고 있는. 그리고 이른바
사상개혁도 어느정도 풀이 깎이지 않았나 하는 인상이요. 무엇보다도
경제적 측면에서 전혀 전망이 보이지 않았고. 약속한 물가고는 이미
물건너가 비졌고 경제 전반이 최하의 수준에 있다는 일반의 일반적인
분석이요. 지금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통과된 공직자 재산공개법이
공포되면 재공개 리스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또 한바탕 파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나 국민들의 기쁨은 처음까지는 아니고 좀 둔화된
편이요.

구출할때 배틀은 모양인데
아까 안상임씨가, 당신이 일년정도 정식공부를 하기로 했다는 말에
어느모로 보나 잘 된 일이라고 동의하는 하더라도 그에게 당신의 태도를
인정하는것은 도리일것 같은데 어떻게 알리지는 미지수.

지금 정혜식구들이 와 있는데 혜영이의 학기말시험 중이라 (50~80)
현재까지는 거의 표류를 못하고 지켜보는 모양. 혜영이는 역시 명랑하고
뚜렷하고 공부도 착실하게 하요. 지영이도 가능하면 미국에서 방학동안
그대로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다는데 막상 오기로 결정한
다음 떠나기까지 한 1주일도 잡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흥분했더니
앞에 오고 싶었다는 입변이 아팠다는 것이까지 아니라 다들가 터진
보릿자루처럼 계속 미소보다 강한 웃음이 떠나지 않고 계속되어
해당목한 모양이요. 본인도 여기 온것이 그렇게 좋다고 하요. 그들의
편안한 모습을 보면 내게 영향을 줌. 영어 가르키는 아르바이트는
언어 매인 가서 두시간씩 가르치기로 했었는데 월급이 100만원
이라니 기가 막히지. (주말에는 두달로 가르킨다지만). life guard
license 가 있대니까.)

재현이는 17월부터 강유원 다고 하고 하신이는 미국 Yale 에
언어연수 갔고. 재현이는 아제는 이틀에 8000 원에 대신요,
정임이는 변질없는 절정인 태도를 일관하고 마음도 안정되어
있고, 그전에서는 아이들도 꼭 같은. 원래 지영이는 좀 무관심한
편이나 (혜영이에 비해서) 물대방이 ~~지영~~ ^{지영}에게
했었는데 혜영이 말과 기의 똑같은 그문제가 해결되지 않

(3)

반박을 했다고 무미건조하게 대답한 모양이요, 그런 헤영이는
오히려 이쪽에서 전화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며 그것이
복너간의 관계도 유지한다는 딱딱한 말로 한 모양인데 오히려
문제가 일촉즉발 모양이요, 36일이 역시 자기쪽에서 전화를
걸고 만나자는 모험을 했는데 오히려 문중이 그 문제로는 만나지
않았다고 기뻐한 모양이요, 그 라36에서 헤영이는 얼마동안
숙을 앓은것 같소, 이렇게 되면 장기간이 되거나 애매한
관계가 오래 끌것 같은데 그점에서는 우울한 상태요, 하여튼
다행히 재앙이가 학교에 입학은 했으나 그것으로 자기 태도에
대리적 표명에 신호로 삼고 동시에 자기 삶을 시작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이 내 권고이기도 하지만 불만도 그런 생각^{이런}을 말하고
있소, 졸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삼아 새로운
삶의 세계를 의식으로 바꿔 시작해서 실제로 해 나가야 하는것이요,
그점에서 물론 내가 지원할것 이요, 또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줄
아오,

집안일은 별로 걱정할것 없소, 당신 자라가 된 것은 사실이나
정일이 되었을 뿐 자양분이 돌아가고 있으니 까, 그 아라머나도
종 들랑끼리는 편이어서 실수는 가끔 있으나 사람이 재작하고
악화가 없는것이 다행이요, 물건등 취하는 일은 있어도 달리
없어지는^{없어지는} 학생이 드니까 7월말 ~ 8월 중순까지 방학일이 겹칠
것^{있을} - 7.20 - 7.28

전제요, 두바이처럼 최선의씨가 거의 비수한때 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최선의 편지에 자기가 머물곳은 다른데 정해 놓았더니
(방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것 같소, 나는 묘새 창조적인 (creative) 면에서는
소강상태요, 벌써 분적화된 여름 타 인가, 건강에도 별로 이상없소,
며칠전 재앙이의 강모에 의해 check up 받고 있소, 언제나
마라가자로 삼기는 하루, 약은 정기적으로 잘 먹고 하루 영양원이
대주는 야채주스로 꼭꼭 먹고,

이만 나 답지함은 잠소리 그분화, ^{황복}황복에게! 이만까지

자원의 특산!

장식으로 단리 못해서
리용하기로.

한인이가 New Nation이
있으니라 (8월10일 경차리)

혹시 가능하면 돌려보내요.
(일부러는 말고, 정말 한인들이
면 지위를 개조는 아니요)
Yak Street는 굳이
숙박지 앞이요

1993. 5.7

원래 당신에게 보내는 네번째 편지인데 사실상은 세번째 받는 셈이군. 전자로 편지로 날로 마음이 안정화가는 모습을 느낄수 있어 다행이요. 여기는 현재까지 개혁이라는 이름 밑에 각 분야가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소. 그러나 한편 움츠러드는 면도 드러나기 시작이요. 무엇보다도 군인 주조에 대대적으로 손을 대더니 갑자기 특목했던 자들 전원을 석방한것이 그 대표적인 예요. 한국의 마피아의 대부라고 하는 황가 제포였는데 그가 관련된 범위가 너무 커서 인지 갑자기 비공개 누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소. 아직도 모두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상태요. 어제 오전에 이상덕이가 와서 (자진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소. 대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소. 첫째 민주당은 거의 가동하지 않는듯한 자세요. 내부적으로 보면 이기택과 권노갑 사이가 멀어져가고 권원재·노무현 제후, 김상현과 정대철, 이부영은 소탐(작은것을 탐함), 조세형은 홀로 걷기, 한마디로 어느누구도 전제를 가배할 인물등장은 없는 모양. 만일 대선거주로 바뀐다면 민주당 해체위기도 가능. 이래저는 뚝뚝한 반면 계산적이고 인덕이 없는 모양.

둘째 연구소; 경제적으로 5월까지는 문제 없고 현재는 자금수급에 걸림. 연구소와 당의 관계는 확고한 모양. 누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고 함. 따라서 연구소는 당신이 활동할 중요한 무대라고 생각하오. 이것은 그 개인의 생각만이 아니라고 하오. 박기사는 이마 내원쯤 두달 월권주교 사임토록 하고 국회에도 알아바 준다고 하오. 그러나 당신 의무감은 올때까지 계속 해야 하오. 그리고 그야말로 당정 입장을 밝히시오. 셋째 그동안 이상덕이가 여성제를 위상해 대각도로 집권을 했었는데 행정권에서 여성으로써 당신의 위치는 대체될 연들이 없다는것. 향후 10년은 그런 사람이 안 나올터이니 상덕이는 <선생님>을 클로즈업 시키는데 목적을 둘 것이라고, 정계에세운 것만큼 많은 선생님이 안하면 ~~안된다~~ 그자리는 그대로 비어있을것 이라고 하오. 권위정부를 통해 강요로 복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하오. 하긴 황 황정장관은 묘사 여자로 추천수에 오르고 있소. 연구소측에서는 한 1년 까지 광복할수 있으면 하는것이 좋겠다는 견해요. 그 말은 당신의 전문성이 훨씬 당신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겠다는 뜻이요. 그리고 지역구 쉼마에 대해서는 한국의 풍토를 보아 회의적 이라고 하였는. 차라리 당신으러는 대선거주 가 나올것 이라고.

이상 대체로 나도 생각했던 범위인데 밖에서의 당신에 대한 평가는 나의 상상을 넘어섰소. 다행스러운 것은 묘사 한국의 분위기가 많이 개선것이 짐스롭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요.

아! 재현이는 여섯시간의 ~~활동~~ 수일이었으나 잘 회복되고 있고 이번에 소변 받아내느라, 웃잖아 압헤느라, 물수건으로 몸 닦아 주느라 <효도관광>을 제가 받은 셈이요. 일음을 수습부위에 대주어야 해서 첫날밤은 제가 샀지만 둘째날은 작은곰마가 오셔서 밤새기 주셨지요. 라신이는 매일와서 간호 해 주다 몸살이 나서 오늘만 안왔어요. 현재 아무 문제 없으나 입천장 수습부위에 음식찌꺼기가 끼면 염증이 생길까봐 물게 한 유등식만 허용해내까 먹성좋은 아이가 배고프다고, 입에 배고프다는 말이 붙어있어요. 정말 먹을것만 생각해요. 이번 주말쯤에 퇴원 되면 좋았는데...

PS. 카인북리 대학원인이 이력해 두원리를 안이 보시오. 카인북리 대주학이21년 퇴직으로 키 해이시

보내는 사람

From

BYUNG M. AHN

603-14 Wod. Myun Dong

Seo Cho Ku Seoul

KOREA



받는 사람
To

Mrs. YOUNG SOOK PARK

% Mr. CLIVE BOWYER

162 CHESTERTON Rd.

CAMBRIDGE CB4 1DA

UNITED KINGDOM

AEROGRAMME

항공서간



TO OPEN SLIT HERE FIRST

제문제는 전전 안되고 답답한 상태. **접는 줄 FOLD HERE**
 저장이빠가 딱 한 번 우연중에 와서 아버를 만났는데 "우리문제는 접어두고 제부모를 같이 만나
 이야기 해야 됩니다" 라고, 내가 쓸 것: 문재방은 제부 모수 변 두더 판제불악화 그는 그의 부모와의 판제만에
 서 모든 문제를 보고 있더군요. 무엇보다 재산 문제를 제안이 넣는 것은 내 지금 현명이가 독려를 계속하는 크게
 변해서 자기 돈에 확고히 했고. 제 부모가 학교로 와서 뭘 보모양, 그때 그는 내 결혼 내 인력등을 들
 현으로 부러지게 자기 입장을 밝힌 모양, 그리고 그의 친구가 권함에 권하했는데 집안사정은 자기 입
 장에서 표현한 모양. 그러 이 애는 조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합의하고. 하여간 마른이 다
 된 느낌, 어떻게 해결 될지는 두고 볼 일. 문재는 머리는 여권 하더군요, 그러나 결단이가 결단
 자기는 결단 하든 이유와 그의 현실이 확인 된다면 포기 하겠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부모를 꼭 맞대게 하려 한다고. (모수) 아직 시집까지 서도 안된 모양이나 짐작 없는
 바깥은 한참 아는 모양, 그러나 전갈에는 물론 지고 철죽도 시들고 있으나 5원이라 부른 거
 권하고 목으로 갖게 뺏고 있고. 오늘 (국일) 은 화로 중일 바깥일 것도. 이애

이 항공서간에는 아무것도 넣지 못합니다.

No enclosure permitted.

제3신을 받았소. 1.2신 보다 훨씬 정숙된 인상을 받았소. ~~정임~~ 정임이라
함께 왔는지. 오늘 정임이가 재천이 데리고 영등재보관소에 가서 모든 검사를
마치고 마침내 내주 화요일 수술할 날을 예정하고 왔다고. 의외로 힘든
수술인 모양인데 오래 그녀석을 독촉하던 일이라 다행이란 마음이 앞서오.
정임이가 재천이를 병원으로 실고 가던 도중 괴여자화 화선이를 병원에 데려
간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일언지하에 그런 견해를 기록한 모양이요.
그만큼 그애를 믿는다는 표시겠지. 그러나 나도 한번 더 말해 보려고 하오.
며칠동안은 화선이 영향을 꽤나 받는다 했더니 어느날 혜영이가 한
코멘트처럼 작심삼일 끝이요. 매일아침 여섯시반에 일어나는 것은 나도
기여하지 않은바지만. 그녀석이 의외로 수술로는 computer를 사 달라는
주원을 반복해서 결국 허락해서 사 주었소. 컴퓨터에 관한 license를
따 갖대 내가 진 셈이지.

이번 수술한 기념으로 ^{사주} 확인하는 수 밖에 되지 뭐. 정임이 문제로
29일이라는 날짜까지 맞추는 것 보아 무척이나 바름 쓰는 모양이군요. 당장 내일이
그날인데 와 봐야 알 일이지만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 불허.
그러나 정임이 자세는 분명한 것 같소. 한번 문서방에게 정임이 자신이 전하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자기 부모들의 일을 ~~출산~~ 하고 처리하라고 통고하기
위함이었소) 문서방은 부원을 모시는 것을 대 전제로 한 공경조였소.
옆에서 보기에 점점 더 ~~연령~~ ~~관계~~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요.
다행히 ~~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혜영이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선취하여 입과 혀를 같이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양이고
그것이 정임에게 힘이 되는 모양이요. 하하한 한 두번 고비야 겪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런 각오를 해야 한 것으로 보이요. 그러나 비교적
안정된 자세이고 담담하려고 애쓰는 것 같소.

재천이에 대해 몇마디 더 보고 할 것이 있는데 그는 수술하고 약 일주일간
입원해야 하며 이번에 성형수술도 함께 했으면 했는데 의사의 말이
이번 수술에는 임치뼈를 떼내어 입술장을 막는 수술인데 그것을 하고
적어도 3시간 후 뼈와 살이 아물러 자리잡고 나면 (전장쪽에 있는 이 하나
빼고) 그후 바로 치아교정 하고 그리고 나서야 (성형 전문 다른 병원)
보이는 부분의 수술을 할 수 있대니 을 1년은 2년처럼 잡아야겠소.

나는 지금 우선 전집종 세권을 준비하는데 머리를 쓰고 있소. 새것을 쓰는 것 보다 전의것을 고치고 보완하는 것이 내 성격에 별로 탐탁하지 않은 까닭도 있고 또 그동안 정임에게도 이일저일이 겹쳐서 생각보다 복잡하나 그런대로 진행중이요. 강의를 계속하고 있고 강령향원등 최소한 매달 한두권 정도는 설교를 해야 하는 것 같소. 그리고 이 ~~group~~ group, 저 group 에서 전에 많이 나와달라고 해서 ~~한두번~~ 이미 한두번 나왔고 또 몇차례는 나가야 할 것 같소. 건강상태는 우선 심장은 특별한 증상은 없으니 다행이고 신경통(다크)은 여전히 있는데 지난해 4.19 때 수영장에서 만난 문목사가 그 자리에서 손·발 여러곳에 파스를 붙여주었는데 그것을 붙이고 있는 동안만은 그 통증이 전덜만큼 가벼워 지기 때문에 지금도 부지런히 부치고 있는 식사는 늘 2상태요. 밥맛이 없으나 먹고는 있어 걱정 마시오. 단 지역마다 들뜬 자 먹는 것은 당신 경우와 꼭 같소. 묘사는 되도록 정임이를 일찍 보내려고 하고 있소. 그 아저머나도 여전히 하도요. 우리들의 전담대는 몇달가 다 저버리고 (보아주어도 못한채) 앞마당의 현쪽들이 피려고 봉우리들이 한창이요. 오래 가물어왔는데 몇지역부터 내리는 비이 해갈이 된 듯 하고 우리 주변은 벌써 연녹색으로 변하고 있는, 춘 이으면 모기가 기능을 복귀했지.

전하를 받자 그날은 이해찬 의원에게 전화로 車. 기사. 이사장 문제를 당신이 말한대로 부탁했소. 그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했고 박기사의 일자기도 책임지고 알아봐겠다고 했소. 車는 등호에게 연락했더니 날짜를 골다가 150만원에 될 듯도 하다고 해서 얼마동안 그대로 놔 두다고 했소. 감가상각으로 볼 때 車는 굉장한 소비품이요. 이상덕에게도 전화했소. 묘사 공부 하는 것이 있어 바쁘다고 (중양大) 하여 이번 주에는 나에게 이야기 해주는 것이 있어 온다고 했소.

미국에서의 program은 6월까지 가능 할 것 같다고 하나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

아제 지역 이해동. 이종옥씨 부부가 와서 지역 같이 나와 약 3~4시간 잡담하다 돌아갔소. 그들은 인편 단심이고 묘사 분위기에 대해 분개만 연발 했소. 무엇보다도 잠깐 인기가 상승하던 후광이 지금은 감싸기 곱잖아 하여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소. 아마 여론 조작

작업이 전파되지 않나 하는 관측이었소. 말하든 중에 당신이 거기서 공부하는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들 갔소. 그 자신이 편지하겠다고 주소를 적어갔소.

지금 당신이 소속했던 단체는 날로 왜소해 지는것만 같은 분위기요. 그리고 불행이 닥치는 기분과 똑같은 것이었소. ^{그리고 불행이 닥치는 기분과 똑같은 것이었소.} ^{당신에게 닥친 불행은} 영남씨가 거의 유일한 스타라고 ^{있으며} ^{국민의} ^{지지는} 여론상으로 거의 절대에 가까웠소. 분명히 형편을 알은 정파작업 인데도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매체를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는 것으로 일석이요. 아마 지금 입사주회에서 공작자 윤리법이 통과될 모양인데 그것을 계기로 5.6월에 공작자 전체의 재산 재 공개를 하겠다는 방침을 신문이 보도하고 있소. 政界, 官界, 학원가, 軍, 금융계, 이제까지 정계 ~~전체~~로 한번 더 태풍같은것이 불어 올 모양이요. 그러나 정황이 (이모에게서 전하) 보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형평원리가 깨지고 윤리정치는 이름만에서 두루하는것을 불안해 하오. 하여간 지금 당은 맑고 영 시민의 전파같은 느낌이요. 이번 보궐선거에 세자 다 민자가 압도적 승리를 했고 이른바 재야를 상당부분 흡수하고 있소. 방금 전화를 받고나니 위에 쓴 말은 효과가 몇 % 안 남은것 같소. 당신 누물은 태 풍에서 정압이를... 잘해 나갈것으로 보이니 안심하오.

이제 천황으로 결별을 서야지. 내가 풀려나면 시간을 보내자 ^{이제} ^{에게} ^필 ^가 ^필 ^{하는} ^{것이} ^{빨리} ^되 ^야 ^하 ^고 ^또 ^바 ^빠 ^른 ^도 ^생 ^가 ^고 ^나 ^는 ^화 ^근 ^에 ^지 ^압 ^받 ^는 ^것 ^을 ^저 ^속 ^히 ^는 ^정 ^인 ^이 ^는 ^내 ^인 ^부 ^하 ^나 ^도 ^모 ^르 ^는 ^어 ^런 ^기 ^혜 ^일 ^이 ^있 ^는 ^것 ^다 ^가 ^극 ^일 ^날 ^들 ^제 ^나 ^도 ^모 ^르 ^는 ^다 ^고 ^하 ^고 ^일 ^단 ^되 ^리 ^라 ^보 ^는 ^생 ^각 ^권 ^화 ^로 ^영 ^신 ^이 ^물 ^리 ^서 ^그 ^이 ^제 ^도 ^물 ^드 ^군 ^지 ^압 ^하 ^는 ^이 ^기 ^문 ^제 ^가 ^나 ^가 ^불 ^과 ^영 ^기 ^가 ^된 ^모 ^양 ^{그러} ^나 ^그 ^가 ^정 ^협 ^한 ^우 ^리 ^집 ^은 ^는 ^그 ^렇 ^지 ^그 ^래 ^나 ^는 ^흔 ^히 ^익 ^는 ^게 ^일 ^생 ^기 ^만 ^은 ^되 ^고 ^유 ^복 ^하 ^는 ^사 ^람 ^기 ^제 ^는 ^이 ^문 ^제 ^도 ^충 ^진 ^하 ^고 ^있 ^는 ^지 ^우 ^리 ^집 ^에 ^당 ^신 ^정 ^치 ^는 ^엄 ^면 ^히 ^비 ^어 ^있 ^고 ^당 ^기 ^는 ^그 ^로 ^분 ^리 ^기 ^를 ^권 ^해 ^주 ^는 ^사 ^람 ^은 ^당 ^고 ^개 ^인 ^{으로} ^말 ^라 ^게 ^되 ^는 ^공 ^화 ^중 ^기 ^는 ^그 ^러 ^한 ^사 ^람 ^을 ^이 ^있 ^는 ^것 ^이 ^일 ^단 ^은 ['] ^빛 ^이 ^진 ^존 ^재 ['] ^되 ^는 ^게 ^충 ^대 ^하 ^고 ^바 ^너 ^무 ^가 ^려 ^서 ^순 ^탄 ^하 ^는 ^것 ^이 ^아 ^니 ^야 ^어 ^행 ^도 ^화 ^로 ^정 ^한 ^도 ^하 ^고 ^여 ^학 ^{Schmidt} ^은 ^사 ^람 ^말 ^나 ^는 ^이 ^기 ^{까지} ^종 ^로 ^뜻 ^한 ^데 ^일 ^신 ^도 ^신 ^직 ^하 ^지 ^아 ^는 ^상 ^당 ^이 ^기 ^어 ^스 ^를 ^되 ^는 ^나 ^를 ^보 ^내 ^는 ^것 ^이 ^하 ^는 ^것 ^이 ^아 ^니 ^야 ^바 ^빠 ^른 ^단 ^하 ^고 ^그 ^{리고} ^건 ^강 ^제 ^일 ^숙 ^의 ^로 ^종 ^로 ^기 ^회 ^를 ^마 ^드 ^시 ^고 ^아 ^니 ^야

民主黨이 임시국회 때부터
부담을 지고 있다.

이 때의 임시국회 때부터
부담을 지고 있다. 「대한」을 비롯하여 국회를
찾아다니는 정치인들이
있다.

○...민주·민주 (영향)
지난 주 총선 및 수석부총리
정부를 통해 5월 1일까지
의사소통을 할 예정이다.

「대한」 지난 22일 보도
정적 결과에 따르면 「대한」
타자 민주黨의 의사가
바뀌기 시작했다.

민주黨의 의사가 바뀌었다.
민주黨의 의사가 바뀌었다.
민주黨의 의사가 바뀌었다.
민주黨의 의사가 바뀌었다.

「李의원 석방」 「차의장 문제」 뒷걸음

지도부선 非主流측 논치 보기만

하도독 하자는 움직임
한정되었다. 「대한」의
한 의원사건 대신 「차의

장 석방」 카드로 여론
을 떠돌고 있다. 「대한」에서
표결해

「대한」이 「차의장」을
내세워 「차의장」을
내세워 「차의장」을

「대한」이 「차의장」을
내세워 「차의장」을
내세워 「차의장」을

「대한」이 「차의장」을
내세워 「차의장」을
내세워 「차의장」을

지는 지를 되지 않고 있지
만 이제 불확 고개를 내밀
지 모른다. 그래서 싸움터
를 급히로 옮기려 하고 있

다. 「대한」이 「차의장」을
내세워 「차의장」을
내세워 「차의장」을

「대한」이 「차의장」을
내세워 「차의장」을
내세워 「차의장」을

「대한」이 「차의장」을
내세워 「차의장」을
내세워 「차의장」을

「대한」이 「차의장」을
내세워 「차의장」을
내세워 「차의장」을

영국서

29/6 15/6

금요일 당신에게 전화한대로 당신 작은 아버지가 목요일 오후 4시 40분에 별세했소. 그 부인께서 아마 당신을 전제하고 우리 집에 전화했던 모양인데 '작은 아버지 돌아가셨다 빨리 오너라'라는 간단한 말이 앤서링 머신에 기록되어있었소. 댁에서 돌아갔다는 것이고 그 부인의 말대로면 현장에 자기가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의심하는 심정으로 들었소. 목요일 밤에 서울대학병원 영안실로 옮겨져서 내가 정임이와 재권이를 데리고 그곳에 갔었소. 처음 손님이었소. 미국에 있는 아이들도 이미 불렀던 모양인데 그때까지 현장에는 없었소. 동호만이 의복도 갖추지 못한 채로 서있었으며 그 부인이 의복을 가지러 집으로 가고 있었소. 그 다음에 정호 부부가 왔소. 그 부인께서는 당신이 영국 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소. 금요일에는 이미 약속된 회의가 있어서 그것을 마치자 다시 저녁에 병원으로 갔었소. 이미 여러 곳에서 화환들이 많이 와있었소. 그 부인께서는 열심히 병간호한 애기들을 내게 해주었소. 듣던 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소. 이미 영호 부부도 또 그 막내아들도 와있었소.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었소. 아무튼 병원에 입원하여 복부에 찬 물을 빼고 안전상태를 확인한 다음 집으로 돌아와서 식사도 하고 약도 든 다음에 평상시와 다름없이 의자에 앉았다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인 것이 그의 끝이라는 것이요. 평안히 돌아가셨다는 말이지요. 본인은 이미 세상 뜰 것을 전제하고 가방 하나에다가 사후에 알려야 할 필요한 것들을 전부 준비해 넣어놓았다고 하며 그것을 보여주었소. 이미 암이 가슴에까지 확대되었다고 하니 고통도 있었을 터이지만 별로 고통을 남에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소. 장례하는 날 (토요일) 8시 반에 국립묘지로 시신을 옮기기 위해 재권이가 아침 일찍 이미 약속한 대로 데리러 온 유석이의 차로 아침 7시 반에 집을 나서 현장에 집 대표로 참여했었소. 그리고 바로 오늘 (월요일) 삼오제가 있어서 나는 마지막 정성으로 정임이를 데리고 국립묘지로 가서 그 식구들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어떤 호텔에서 준비한 간소한 점심까지 하고 돌아왔소.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군묘지에 안치된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모두 그 곳에서 준비하는 통에 집식구들의 할 일은 전혀 없더군. 그리고 이제는 장군묘지가 없어서 다음부터는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데 마지막 순간에 서울 국군묘지에 묻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들 합니다. 이상은 그 장례과정에 보고인데 이렇게 세밀하게 서술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을 대신해서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것이요.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모든 식구들중에 아마 당신이 돌아가신 이에게 가장 가깝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더군. 이것으로 그집과의 관계는 (그 부인) 끝장이 났다는 분위기입니다. 그 부인은 아이들에게 단 한 톨도 유산을 줄 것이 없다는 선언을 하고 집 한채 있던 것은 모두 병치료 등으로 써버렸다고 했다는 것이요. 사람 하나의 역할이 그 집안에 주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소.

7월 16일

방금 TV를 보았는데 DJ가 이기택을 만난 장면이 나왔으며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중에 이우정씨도 눈에 띄었소. 그 자리에서 DJ는 정치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말을 재삼 천명했으며 현 정권의 개혁사업에 성공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야당인 민주당이 강력해져야 할 것이라는 말이었는데 해설자는 이 기회로 이기택 Team이 좀 더 힘을 얻게 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소.

한정호

정계에 대한 관심의 도는 일반적으로 점차 냉각상태에 들어간다는 인상이 무엇보다 김 정권의 개혁의 한계점이 계속 노출되기 시작하고 있소. 전교조 문제도 전 정권과 똑같은 태도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현대를 위시한 노동계의 파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태세가 날이 갈수록 전 정권들과 별로 달라질 수 없다는 인상이지요. 7월에 한 이주일(?) 임시국회를 여는 모양인데 그때 이미 여야가

합의된 공직자 윤리법을 통과시키면 다시한번 그 문제가 화제가 될것같소. 처음 발표할 때에는 발표 기준이 전혀 없어서 들쭉날쭉했는데 이번에는 기준을 정했음 뿐 아니라 처벌규정도 있기 때문에 긴장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요. 그것으로 이 정권의 사정 정치는 일단락을 지을 것 같은데. 이 정권은 국민들의 자율적인 정치운동이 계속되기를 호소하고 있으며 또 이에 아부하는 소리도 모든 분야에서 들려오고 있소. 나의 의견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적극적인 것으로서 많이 가지는 것이 반드시 행운이라는 간단한 사고가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것은 상당한 수확이라고 생각하오. 시간이 얼마 지나면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전제해도 말이요. 아무튼 권력 무상의 모습을 잘 드러냈소. 인상으로는 오·육공 세력들은 이런 일 저런 일로 후퇴될 수밖에 없는 추세요. 당분간 필요에 의해서 김종필을 그대로 두고 있으나 본인도 멀지않은 자기의 운명을 예감하고 멀지않은 장래에 그 자리를 떠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소. 이른바 하나회라는 것을 중축으로 한 군인 내부의 족벌정치가 무너지고 그것과 관련이 된 TK의 세력이 무너진 것은 사실이요.

윤석열은...
김종필...
하나회...
중축...
TK의 세력...

그런데 일부에서는 새 권위주의 등장이라는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소. 현재까지는 의회는 없고 정당도 없으며 있는 것은 대통령 하나뿐인듯한 인상이요. 그는 미디어를 잘 동원해서 여론을 앞세우거나 등에 업으면서 자기 뜻을 관철하고 있소. 아침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소. 재야라는 개념은 사정없이 깨지고 있으며 이중적인 처신을 하던 사람들이 그 면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거나 아니면 시민운동과 재야운동을 혼합한다는 식의 이합집산의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소.

재권이는 화선이와의 관계가 smooth하게 나아가는 것 같고, 그애와의 관계에서 기대했던 생활습성의 변화는 기대했던 대로는 아닌 것 같소. 하여간, 대학원에 들어간다는 전제는 변함이 없고, 지금까지는 내보기에는 시간을 많이 허송한 것으로 보이나 7월부터는 학원에 나가기로 전제하고 있소. 영어와 독일어 공부를 위해서 말이요. 어떻게 하던 대학원에는 들어가야 면목이 설 것이라고 본인도 생각하는 줄 알고 있소. 아마 그러지 못하면 화선이한테 채일지도 모르니까. 그 어머니를 만나라고 하니까 백수 꼴에 어떻게 라고 말꼬리를 흐리는 말을 기억하는데 아마 직장도 안가지고 있다는 것이 면목이 없다는 정도는 알기는 아는 모양이요. 그러나 이에의 자세는 놀랍게 좋아졌다는 것이 정임이의 평이요. 부드러워지고 전에보다 관대하고 매력적이라고 까지 했소. 컴퓨터는 정임이와 이녀석 둘의 협공작전이 결국 내가 쳐서 갖추어주었는데 잘못했다는 생각은 없소. 장난을 하건 게임을 하건 하여간 컴퓨터에 매달리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면 악기 만지는 것과 같이 컴퓨터도 정식으로 배운 일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심플 수준은 좀 넘어선 듯 하오. 그것으로 면허를 딸 수 있다고 본인이 말해서 은근히 기대를 하나 그런 것으로 아무것도 할 마음은 없소. 내 하는 일을 그의 컴퓨터 실력으로 많이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워낙 악속을 잘 안지켜서. 하여간 그런 전제로 가진 일들이 쌓여있소. 화선이는 이번 주말부터 미국으로 가서 6주간 영어 코스를 밟는 모양이요. 따라가라고 말했더니 그렇게는 않겠노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학생이 아니어서 그렇게 간단히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동안 집에서 대학원 진학할 준비를 해야 할 입장이니. 치료한 것은 서서히기는 하나 점점 나아져가고 있소. 아직도 완전히 치료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소. 그 일때문에 병원에 가는 성적은 좋소. (대필은 안재권이올시다. 그런데, 이거... 내 평을 내가 대필하고 있자니.... 사실 내가 내말하기는 참 썩스럽네요. 엄마랑은 항상 장난만 쳤지 뭐 그런 얘기 정식으로 편지로 쓰자니 그렇기도 하고.... 제 카드는 받으셨죠? 어머니 편지도 다 잘 받고 있습니다. Book Mark도 전해주었어요. 아주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

군요, 화선이야. 뭐 제가 더 이야기 할 것 있나요... 그동안 아버지의 외교행낭을 통해 내 비밀이야 다 알고 계시겠지요 뭐.... 아 참, 얼마전에 신문을 보는데 얼마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젠 제가 발견한 거라구요... 제가 편지해서 동봉해야 하는 것인데 마침 이 편지 대필하는 김에 같이 보냅니다. 글썄요... 우려하신 것 만큼 이미지가 구겨지신 것 같지는 않구... 기왕 환경 공부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는데 확실하게 하셔야 할 책임이 더 생긴 것 같군요.)

정임이는 정서에 있어서 정상상태로 돌아왔다고 보ियो. 어떻게 저멀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문군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소. 시어머니는 열심히 수신문해서 이사한 집의 전화번호와 집주소까지 알아내서 전화까지 했으니 문서방도 전화는 물론 주소까지도 알텐데 일체 전화하는 일도 없고 한두번 정희네를 통해 감정섞인 말을 전했을 따름이랴오. 하여간 현재까지는 약속한 대로 일년간은 현재대로 있고 그때까지도 현재와 다름없다면 이혼해주겠노라는 입장 표명인가보오. 혜영이와 정임이가 두번 전화를 오히려 이쪽에서 했던가보오. 특히 놀란 것은 혜영이는 자발적으로 대개 다음과 같은 뜻으로 전화했다는 것이요. 대디와 정상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도 엄마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도 이혼 수속을 해달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둘 사이에 끼어서 자기는 힘들다 이런 상태에서는 만날 수는 없다 등등. 하여간 비교적 장시간 argue를 하는 것을 듣고 정임이가 충격을 받은 모양이요. 그만큼 자주적이고 벌써 어른이 된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아이보다 두살정도 어릴 때 우리 부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섰던 기억이 날 정도였소. 그러나 문서방은 태도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았고 가부간에 행동이 전혀 없소. 그 후에 정임이도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한 모양인데 문군은 여전히 같은 내용으로 강경했다고 하는 것이요. 하여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소. 그러나 정임이의 정서는 이미 말한대로 거의 완전하게 가까우니까 걱정할 것은 없소. 지난 토요일에 한대 경영대학원 시험을 쳤는데 어쩌면 입학이 될 것 같다는 거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새출발을 생각하고 구체화하는 계기말이요. 정혜네가 6월 24일에 아이들과 지영이까지 오는 모양이요. 두달간 예정. 지영이는 오고싶지 않았으나 집의 사정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오는 모양이요. 미국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졸랐는데 혼자 놓아둘 수 없어서 오는데 여기 와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교육문화회관 수영장 Life Guard에 신청해서 될 모양이요. 그놈의 자세는 좋지. 돈을 벌겠다는 그 자세 말이요. 그리고 저녁에는 수학공부를 위해 학원에 나간다는구려. 혜영이더러 미국가라고 했더니 방학동안에 여기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를 거부. 하여간 두 아이 다 묘한 애들이요. 특히 혜영이는 물방울이라고 했는데 재래적인 의미의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요. 성적도 뛰어나게 좋고 생활규범도 분명하고. 여기에서 이대로 가면 일류 대학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닐 것같소.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 대한 관심은 없어졌다는 것이요. 그러나 정임이는 지영이 대학 진학에서 장학금을 얻게 하기 위해 두 아이의 시민권 신청을 진행중에 있소. 그것이 끝나면 자기는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요.

이쯤하면 여러 잔소리가 대충 끝났다. 당신이 지루할 것같아 또 당신에게 대해서 무심치 않다는 표시로 그리고 재권이가 컴퓨터로 잘 받아써주는 덕으로 이렇게 많이 써가고 있는 중이요. 그러니까 벌써 한시간 이십분이나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요.

끝으로 당신에 대한 것이요. 당신이 전화에서 말한 대로 이해찬씨에게서 연락이 오면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그에게서 소식이 없소. 이해찬이와 충분히 사적으로 이야기를 못한 것은 좀 유감이요. 그러나 당신이 지금 그 다음을 위해

362 이야기

지영 혜영

이해찬씨는 어디
23기

서 공부에로 태도를 결정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하는 계기를 주는 것 같소. 며칠 전 어떤 모임에서 이태영씨를 만났는데 그도 당신이 공부하러 영국갔다는 말을 듣고 아주 적극적인 평가를 하며 영숙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도 생각한 대로라고 반응했소. 하여간 당분간은 집중해서 정말 공부가 무언지 맛을 볼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끝으로 내게 대해서 궁금할텐데 오늘 두달만에 병원 진찰을 받고 왔소. 그래야 밤낮 매한가지. 나는 다행히도 지난 봄을 무사히 넘겼고 지금 심장에 대한 부담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소. 디스크의 압박은 굉장히 받아왔는데 본격적인 여름철이 돌아온 탓인지 지금은 상당히 가벼워졌소. 그러나 내 자신이 게을러진 것도 있고 정임이에게 이런 저런 일들이 방해가 되서 하는 일의 리듬이 좀 깨어진 것 같은 느낌ियो. 다시 마음을 먹고 (전집을 포기할 생각을 여러차례 했소. 까닭은 그것도 내적으로 상당한 구속이 되니까. 그리고 해야할 일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 일을 추진할 생각이요. 그런데 나이 탓인지 계속 감투를 자꾸 쓰게 되오. 예) 한신연 이사장 민중신학회 회장 함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통일헌법 기초위원회 의장 등등. 그리고 잘못 낳은 자식 많이 둔 사람처럼 향린 강남향린 한백 등 때문에 머리를 써야 하고 연구소 건축 허가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소. 디아코니아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평안히 지나고 있소. 아직까지는 그리 덤지 않아 뭘 쓰다가도 자주 마당에 뛰어나가 마당놀이를 하고 있으나 서서히 모기가 극성이요. 이만 재권이를 풀어놓아주어야지. 그리고 재권이와 더불어 확실히 말해야지. 당신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존재라고. 당신의 빈자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공부에 전력하라고 여기는 당신의 집이 없노라고 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어린애같이 굴지 말고.....

m 20월

0-4111 102 022

6월 21일 11시 12분

아빠.

아침!

서기: 당신의 아들 재권
둘이 뽀뽀를 보냅니다.

추가: 오늘 여신생 전화에 최선이가 기말...? 기말이 일주일밖에 된다고 했소.

제너 텐서 D. Schweitzer 가 17,30일에 와서
= (1) 독일 헌국의 흥가호내리라고.

다 알든일이야 밤택이 승복될까 한글씩 써 보냈는데 갓은받이권에 온 연극
승바이커는 Heidelberg에서 학회로 통해 당신 영국 온것 알았다고.

그러나 7N 중수이류 3주는 우리로 여름을
종들의 지낸단.

6:1의 경계를 두고 함격하고
도도해-도.
적의가 경역마함원이
0-4111 102 022

어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맑게 개였고 여기저기 보라색 꽃들이 피어서
 이모 생신 다가움을 느끼게 해 주네요. 저녁에 막집에 오려는데 우체부가 주는 물지에 이모편지가
 왔어요. ^(14일) 생일에서 서재에서 (제가 알고) 앉아 각기 자기이야기들을 써 기뻐서 들었지요. 저 안 올랐어요.
 아버지는 이모가 자빠지고 정면해 지셨다고 마음 놓으시네요. 재권이는 토요일 (15일)에
 퇴원했어요. 암지에서 배를 잘라 입전장에 붙였는데 (구멍을 메꾸느라고) 이제 살이 잘
 자라서 배를 덮고 염증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음식을 먹으니까 찌꺼기들이 끼게 되어
 뱀아내느것이 요즘의 일이지요. 3일에 입원, 4일 수술 15일에 퇴원했으니 지루해했지요.
 전신마취 했었고 구강외과 쪽에서는 꽤 큰 수술이었다고 하는데 길으로 달라진 건 많이
 좀 억울하지요. 아버지는 하느님에 길이 전정도 원하셨지만 의사들이 순서가
 입안 구멍 메꾸고서 (잠 이도 하나 뽐았어요) 차아 교정 해서 기분적인 것 다쳐왔을 때 길에는
~~전신마취~~ 생형 전문 찾아서 하라고요. 퇴원후는 다음날 부터 매일 아침 데리고 가
 입안 청소하고 의사한테 보고 데리고 갔는데 내일부터는 ^{재권} 혼자 다하게 되지요.
 암지배를 잘라내 전측거리고 길으니까 가슴아퍼서 데리고 다녔는데 내일 오랜만에
 화선이나 데이트를 하는데 라전 서울랜드에 놀러 간다구 해서 원만 허가보니
 내일부터는 혼자 뽐원 다나고 했지요. 집에 데리고 다닐 땐 산보하면 좋았는데...
 밤중 이모편지 외전 몇시간이나 뽐뽐소리가 나는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약간 화가 나신 아버지가 너까지 협세 해서 사달라고 해서 바쁜 것 사주었는데 벌써
 며칠째 게임만 하고 공부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학원도 아직까지도 알아본 것도 없고
 (지난달 서울대 아침 영어 한 강좌 신청 했었는데 작심 며칠로 끝났음) ... 등등
 속상해 하셨는데 이모가 재권이에게 몇마디 하셨길래 되풀이 해서 크게 읽었지요.
 아버지는 수술해야 한다니 죽은 마음 수술 선물(?)로 사주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마음이 약해서... 화선이 만나면 참 반가와 하시고 다사롭게 대해주세요.
 입원하는 날도 피곤하신대도 굳이 참여한다고 따라가서 입원수속 하는데 일일이
 같이 대신고 원래 난 3인실에 입원하려고 했는데 (2인실은 만고) 재권이가
 조용히 혼자 야간을 원하니 돈이 세배 이상 (방 하나, 하루에 10만원돈) 인데도
 해 주라고 해서 애저로워 하시고 완전해 질 때까지 꼭 수술해 주어야 한다고
 걱정 하세요. 어쨌든 재권이가 그런 부모들 마음을 좀 알아주고 조금씩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일을 하면 좋겠는데... 입마 안 개시는 동안 아버지는 거의 매일 혼자
 제멋대로 많은일을 밤 12시 넘어 들어온다고 하니 좀 걱정이네요. 처음에는
 화선이 영향을 받든 듯 하더니 — 끝났어요. 화선이는 현재까지는 재권이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흠이머니. 31세 언니 (결혼안한 교사)와 셋이 살고 있고
 왜바 들인데 한 오빠는 Alaska에 무슨 연구원 인가 기술자로 가있고 결혼했고

한오빠는 ^{왜전부터} 정신병을 앓고 시골에 이디 왔다고 (아것이 좀 약점) 해요. ^{화선은} 이제 ^② 리세니까
이리다면 이리지요. 재원이와 서로 의지하고 믿고 당기며 잘 발전되기를 바래요.

잇그제 큰삼촌이 처음 한번 오셨었는데 새우 1 Box 사오셨는데 재원이 퇴원하면
먹어야지 하고 장희네 평촌 APT에 보관, 재원이 말이 새우 이디 됐느냐고 해서
데 2리냐고 했는데 화선이 새우 좋아한다고 해서 며칠 앓다 ~~데려다~~ 데려다 먹아주
했다고 해요. 나는 질투난다고 했고 아빠는 너무 좋아 하시며 그래라, 그래야지,
... 잇미바라시기 잘하든 아빠는 염마도 화선이 봤든가!? 를 서너번재 물어보셔요.

장희는 15일에 미국갔어요. 한 열흘 앓다 온대요. ^{남양} 서서방 말이 할아버지가
물을 흐려다서 온집안이 할아버지 집안 됐다고, 유선임마. 유선이. 유선이 할아버지
20일 전에 미국 여행 갔으니 할아버지. 큰삼촌. 서서방. 주현아빠(유선삼촌). 등
모두 할아버지라고요.

이모차는 경호삼촌에게 판 셈이고 (동호에게 말해서 150 ~ 200 만원 준대요)
그래도 팔아야 하나 아까워서 그랬는데 삼촌차가 고장 갖고 그래서 서울에
잘 못 온다고 해서 이모차 이야기 하나까돈 꼭 준다고, 아빠는 이번에는 받아야
하고 돈 받고 주라고 하셔서 받았다고 하고 줬어요. 한달만에 주신다고 했고
꼭 받을게요. 남 주는 것 보다 정말 잘 되었어요. 삼촌차는 박후장이 가져갔고요.
(고쳐본다고 ... 되면 좋겠어요)

큰삼촌은 잇그제 처음 만났으니 이야기할 기분이 없었으나 서서방 편에 들으니
그때 된다면 일이 안 되었대요. 그러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나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는 않는다고 해요. 또 다른 방법으로 되겠지 — 그러신대요.

아빠는 5월에는 매주일마다 계속 설교 (향년 40 주년. 남향권 개원 예배.

....) 목요일마다 강의. 내일은 신학사상에 「민중신학 대담」 있어서 오후 3시
~ 6시 까지 우리집에 현영학, 서광선, 채수일, 최영목 목사 등이 오신다고 했고
저녁은 교육문화관에서 채수일이 준비했다고 해요.
살림원고 (아들애는 한 열흘 애써서 쓰고 다시 고쳐 쓰시고, ^{서서방} 다음에 안드라고
다시 고쳐쓰고 혼자서 애 쓰셨는데 결국 17일 (말리고 있다 last minute) 에
너무 마음이 안들어 이번 목에 못 내겠다고 통고) 때문에 마지못하고
애쓰실대로 애쓰시다가 아꼈을 토대로 다시 써서 다음에 내시겠다고요.
제가 재원 병원 다니고 혜영이가 우리 이사나온후 처음 중간고사라 제삼에
좀 일찍 오고 했는데 분위기가 차분치 않으니깐 역시 자장 받으신 것
같아요. 혜영이는 잠중 잘하고 야무저서 잘 아껴내느라 같아요. 수학을

실수 많이 해서 76점 받는 뽀빠이 생겼는데도 ^{전라북도} 평점은 93점 이니 잘 했지요.
 이걸이날 할아버지가 점심 사주셨다고 (그 전날 저는 자원이 병원에서 밤샘
 새느라고 다음날 낮에 제집에 오니) 하나까 ^{혜영} 사 주시려면 「스시」 사 주세요.
 그래서 셋이서 일본집에 가서 스시 먹었어요. 그들은 우면동집 잠고
 할아버지가 혜영이 데리고 제집에서 주무셨거든요. 큰이 할아버지를 자기침대에서
 주무시게 하고 이불끌고 그말에 타서 자면서 꼭 손뼉들고 ^{평생} 행복이
 겨워(?)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는데도 혜영이는 잘 보호 한다고 계속
 할아버지 곁을 맴돌고 — 그날 집에 와서 아마 낮에 약 잡으시고 주무셨다고
 하던것 같아요. 할머니가 뭐든가 한가지 사주라시지만 아직 원하는 것이 없대요.
 삼촌이 늘 늦게 오다, 또 양원 하느라 기타를 꼭 하루 레슨해 주고 못해봤는데
 지금 퍼지시다 (밤 11시 20분) 자원에게 전화 해서 문단속 부추리며 뭐 하나고 했더니
 마지막 소원들이 한대나!?

병원에 입원했을때 맴돌같은 마음 아니, 쌀뜨물만 먹을때 꼭 마고 싶었던것 연상하는
 몇가지 중 초밥, 피자, 달, 족발, 라면 즐긴것은 다 먹었거든요. 마지막 남은
 라면 끓여먹고 왔대요.

이모 편지의 구구절절 저에 대한 걱정에 귀찮아하기도 하고... 여러 겪어야 할 절차에 좀
 사달리는 편이었는데 ① 지영아빠 나에게 폭력행사후 곧 자기부로 통장, 5장 달라. 5분동안
 정신 못 차리는 내게... ^{중재} ② 공항에서 자기부로 모시고 오자 집안 뒤졌더니 패들은 다 갖고
 갔더라 (초대한 그것들은 상자까지 다 주고 갔음에도) ③ 4월 29일 자기부로 왔는데 5월 14일
 에 드디어 시어머니가 그 동네 어질 저질 수호문 해서 다녀서 혜영반 아이 어떻게 알아내서
 전화번호 알아내 혜영에게 전화해서 그 APT 열쇠 갖고 왔느냐, 마지막에 잠고
 갔고 왔더니 이제 별모래 ^{앞문} 가니까 열쇠 곧 줘다 달라.

세가지 보면 그쪽에서도 ^{태도가 먹바지로 자세하게} ~~마음과~~ 다 됐고 갈데 까지 간셈인데도
 지영아빠는 현재 까지 전화 한번 없어요. 우면동에와 아빠 한번 만난것 외에는.
 이제는 법적으로만 끝내지 않아 점점 하지만 제 마음은 정리 되었어요. 허상에
 살았던 지난날들이 이제는 남의 일 같이 덩 덩하기만 해요. 그리고 내 마음속이
 그사람이 없어요. 끝내 자기집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끌어보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것이 역시 예상대로 예요. ^{그점이} 제가 늘 아팠던 부분이였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 ^{지단 생활에서}

이모! 이모 생활은 편지를 통해 잘 안났고 이모를 위해 참 잘하셨것
같아요. 여름방학에 아바넨강이 하수하면 ~~이~~ 다녀신 의향도 있으신거네요.
아랫층 이모방을 이삼일에 한번씩 열고 자하합니다. 하전해요.
처음에는 왜 이모가 그렇게 개쳐야 하나 그래서 눈물이 곧 흘렀는데
이제는 그것이 역시 제일 이었다고 생각되니까 이제는 괜찮아요.

모들은 주번으로 이만하고 — 모 들게요. 밤이너무 늦어서요.

참! 안락과 증축하는 이상각시가 부쳐 드렸다고요.

아직 드릴 말씀이 있어서 곧 편지 드릴게요.

정일동림

1993. 5/17 월요일

Fragrance of Purity

We made now
juvenile new letter-pad

보고 싶은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그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저번주 금요일

에 중간고사가 끝나서 요즘은 "여유 만만" 합니다. 시험이 끝나자 마자 할머니께 그동안 쓰지 못했던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주말 동안 바빠서 결국은 지금 편지를 쓰게 되었네요. 주말 동안 뭐가 바빴나고?

토요일에는 학교가 일찍 끝나서 (스승의 날이라서) 엄마 따라서 삼촌 병원에 갔어요. 타원을 시키러 했지만, 병원에서는 몇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엄마, 삼촌하고 나가서 점심 먹고 다시 타서 타원시켜 갖고 우면동에 가서 놀았어요. 마당이 꽤 너무너무 좋아요. 꽃들이 말도 못할 만큼 예쁘구요. 엄마는 마치 '풍경화'를 그려 놓은 것 같다고 해요. 하지만 좀 일찍은 시간이 많아져서 못 나갈 것이라고 해요. 토요일 우면동에서 잤는데, 기 한테 ^뽀뽀했어요! 얼마나 즐겁는지 나중에야 때가 나오더라고요... . 일요일에는 아침에 교회 갔다가 점심 먹고 다시 할아버지, 엄마 따라서 '향원 교회 창립 40주년'에 가서 예배를 봤어요 (저는 너무 때문에서 예배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것도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예요). 예배가 끝나고 삼촌 데리고 남산에 가서 공원 구경 좀 하다가 그 옆에 'Hyatt Hotel' 부대에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할아버지는 물론, 엄마도 별로 많이 안 먹었지만, 삼촌하고 나는 둘이서 싹싹 먹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하실 정도로... .

지금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카드를 옆에 놓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요. 편지가 많았을때 할아버지, 엄마하고 같이 있었어요. 엄마가 크게 말했는데, 우면서 말으시더라고요. 저는 편지를 들으면서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서 편지를 쓰는 모습이 머리속에 떠올랐어요. 거의 눈물 보이듯이 말이에요...

향원 데리는 잘 남겼어요. 저의 반 반주자가 '반주상'을 받았고, 저의 반이 '장려상'을 받았어요. 기라는 시작 한다고 하고 그동안

너무 바빠서 못했어. 피아노, 테니스, 더군다나 사형도 있어서 말이야.

할아버지는 잘 계세요. 댁에는 좀 괜찮네요 하시라, 보기에선 좋아보여요. (산은 하나도 안졌지만...?) 상술도 잘 됐어요. 새 컴퓨터 산지 몇칠 안되어서 너무 좋아하는것 같아요. 테이트도 열심히 하는것 같아요. 상술 여자 친구가 병원에선 거의 하루도 빠짐 없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올 때마다 상술은 힘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아프다는 소리 하나도 안하곤, 계속 그 친구한테 말하곤, 편찮게 쳐다보곤 슬 만지곤 그랬어요. 엄마, 뽀뽀 할이냐 다 봤어요. 그 때 때문에 제가 댁에 상술을 많이 돌려요. 할머니는 그 인내를 공연 때 배고른 화병도 가하시라 못 보셨지요? 제가 보기로는 예쁘게 생긴것 같아요. 키도 167cm 정도 되고 무거우지 낯선하고 웃도 벗쟁이로 입도 다녀요.

저번 주 토요일 "스승의 날" 때에 엄마가 우리 방 "명예교사"를 하셨어요. 책도 많이 읽고, 할아버지한테 많이 물어보고, 연습도 많이 하시거나, 참 잘 하신것 같아요. 엄마는 계속 격찬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참 잘 하셨던것 같아요.

할머니가 카르에 기린이날로 뭐가 하나 사라 하셨는데, 글썄요, 저는 괜찮아요. 카드로 흥분 했어요. (만약에 사곤 싶은것이 생기면은 살게요!)

할머니, 거기 생활 어떻게? 할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디예요? 텔레비전은 보세요? 몇시에 주무시곤, 몇시에 일어나세요? (공부 하는라 잘 못 주무시면 안되요!) 혼자서 뭐 잡수세요? 나가셔도 먹이 보정 있어요?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하곤 다녀요? 다른 곳 좀 구경하러 보셨어요? 거기 시내는 어디예요? 너무 궁금한것이 많아요. 이번 여름 방학 때에 할머니를 보러 가면 좋겠지만, 글썄요, 그 때 어떻게 되려는지...

(인양) 사진 한 장 보낼수 있으면 보내주세요. 예기도 할머니 사진 있긴 있지만, 지금 할머니가 있는 곳에서 찍은 사진을 보곤 싶어요. 바쁘시다보면 괜찮아요.

할머니! 제자요, 댁에도 할머니께서 옛날에 사다주신 "Kathy" 인형을 매일 매일 안고 자요! 태 그려놓기를 보르겠지만, 그냥 안고 자면 좋아요. 하! 하! 히! 히!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이후, 아저는 몇 개월 남았어요. 하지만 살아야겠지요? 안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편지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너무 시간 많이 바빴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물론 건강하세요.

P.S. I ♥ YOU!
P.P.S. I MISS YOU!
Hugs & Kisses
할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손녀 딸
- 레미아가 -

아빠야미! <안, 베틀 교수님>

1993. 7. 24

Cambridge에 있는 Visiting Scholar인 것을 Cambridge 대학의 Department에 축하장이 College에서 축하 편지와 함께 보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빠야미 Clare Hall의 Visiting Fellow인 것이 축하라고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에 내년 3학기의 추천서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김형재가 이미 서신을 보냈는데 두 번째로 연구소의 이사장이신 변영환 교수를 소개 내세우셔서 그 추천서도 변영환 교수의 서함으로 이쪽 Clare Hall에 FAX로 보내주실 겁니다.

다들 보내달라 하는데 양식으로 보면 영문작성도 되어 있어 간단하게 잘라서 붙여 붙이기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료가 더러 깨끗하게 된다면서 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영환 교수님께 사정 이야기 하고 서명을 받으신 뒤 이쪽 쪽으로 보내주신 뒤 연구소에 우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적이신 분이 추천서 2통은 너무 여러 일로 시켜서 정년에게 부탁합니다. 변영환 교수의 장편편지입니다.

878-6188과 543-6408 또는 543-6408입니다.

Clare Hall에 축하하는 편지를 주소(영문작성으로)나 발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쪽 쪽으로 편지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7월 29일 1:00 비행기로 Washington D.C.로 출발할 예정으로 비행기표를 구매했는데 더러 거기 있는 신촌에서 Clare Hall에 발송해 주실 겁니다. 추천서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러 받은 이메일 재료가 더러야 더러야 Washington D.C.에서 8월 6일 까지 National Recycling Coalition에서 활동하는데 26일 ~ 28일까지는 San Francisco에서 다른 활동들과 보고회를 갖는 등 귀국해 주실 뒤의 활동에 저와 다시 New York으로 9월 2일까지 가서 9월 9일 London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28일에서 9월 1일까지 몇몇 일간 (5.7) 2주에 걸쳐서 본래의 주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른 활동들과도 긴밀하게 연락을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료가 양호하게 잘 15월 16일 재방문 예정입니다.

Cambridge에 있는 P.13 부록 3주에 이어 학교에 갈 예정입니다.

더러 10.1 ~ 12월 17일까지 휴가 시작 예정입니다.

아빠야미 걱정 없이 기다려주세요 이번 주입니다. 영문작성

Dear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잘 있습니다. 다음 주 하필이면 항상 대리가 있어서 좀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가성지 3주가 되었지요?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지가 않은데... 할머니 공부 많이 한다는 말 들었지요. 혼자서 외움지는 않으세요? 할아버지 생각 많이 하세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4월 7일에 시험을 봤었고, 이제 다음 시험은 5월달에 있어요. 그리고 6월달에는 '일본의 학교' 하고 농구 시험이 있어요.

이제 상충한테 기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역시 너무 바빠서 제가 연습은 못해서 이제 겨우 노래 한 곡을 연주해요. 그리고 상충이 컴퓨터 새 것 샀단 그래서 상충 옛 컴퓨터는 저에게 줬어요. 이제 컴퓨터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영마하리 이사온 새 아파트는 좋아요. 밖의 경치도 참 좋고, 학교라고 가깝고, 제가 방이 3개라서 좋아요 (하!하!). 나쁜 점은, 부엌이 매우 매우 좁다는 것과 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도 매우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요.

부모님 우매종에 가서 할아버지하고 전갈래꽃을 따서 침상가득 반죽으로 화전을 만들었는데, 참 맛있었어요 (할아버지도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학교에도 갔고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좋아했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편지 계속 쓰게요.

이번에 간증 써서 작성했어요.

P.S. I Love you!

P.P.S. I MISS U!



Love,
혜영

지난번 전화에 12월이 오고 싶다고 하더니 정임의 말이 12월
이든 양도겠대구? 2월이 끝나면 두달 후에 령하느제 좋겠지.
나는 지금 디스크 치를 수위한 약으로 먹고 있고. 감수항진 보리까지 한
한번씩 먹고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 나오는 흥행사리를 봤나 (전개
도 그가 인턴 때 서울 대학에서 봤을 일 있었음) 이야기 했더니 계속 연직
하면서 맞은 약 처방하라고 하든 지금 세번 채 약으로 시험 중이로
상당한 감수항 약이라 반드시 초화제를 먼저 먹고 드는 거기도. 약 3
주 가까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느낌 (Feeling) 달라졌고. 붓는
것 같기도 하고 현실 느낌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여러번 미-준거고
정임이 말대로는 그 약도 다음 다음년부터 내가 무슨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감정이 상당히 침체 되어 있고. 그렇다고 슬프거나
노태운 것 같은 감정도 없고 그리 더 - 이 한겨울 활동만을 이제 나
의 사고 (분류)의 원인이 맞다고 생각해 왔음. 그러나 역시 약 때
고이라는 판단이 좋은 것 같은데 침을 맞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예민
을 훨씬 덜해 줬는데 침치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 약이 아픔을
덜어주는 것 같고. 이 약이 진통작용도 하나 염증을 마분제 하는 작용도
한다기에 더욱 맞다고 하든 받아드린거고. 상당한 기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럴 것으로 맞고 아픔 때문에 통 막히지 않을 것
하든 강해 하든 더 다시 쓸려고 하든 되기도 하고 (오늘은 노트 18매
들) 자습제원도 없고 정임이는 학교로 갔고 제원이는 안리지도 않고
점심제원 나갔는데 내일 시험이라 숙제를 받느라 잔뜩 같은데.
그이는 독한기로 하든 매일 맞았고, 또 독기 해독기 유린 권이
맞았고. 그러나 혼자 공부하는 혼자는 없고. 그래서 현행사
두견으로 된것은 - 1월 14일 일로 오야해 내리고 행해
고이로 했고 정도 했고. 영어는 모르겠고, 끝내는 공부 하리 하는.

것. 신나는 것은 아직 무대에서 서는 것. 도리성이 있어. 영국의
다그 할한 자기 암시를 주다. 내게 단호히 거부해 줘 줄기
것도. 내일 수련해 볼 일이라 글씨! 그는 재수한 해사라고
서로가 그 때가 됐다는데! 나는 새학으로 그 해에 대해서
그렇게 초조하지는 않고 두 개 달음에 정착하게 지
하리. 정임이 공부를 꼭 해 줘 줘 줘. 시간이 양배지로
하 노-트정기 잡화. 매번 수채도 잘 준비하고 재귀
이제 문득히도 치기 해주고. 한지 문동생이라 문해 해 줄
이 아직 머지수. 이녀석이 대구에서 미국으로 오가고 서울에서
통이 있고 미국에서 계획이 계속 차질에 오는 모양, 집
으로는 그 직장도 임시적인 것 같음. 그 부모들은 미국가기도 하
여기 딸도 데려간다. 그리고 여기 집도 처분하고 그래서 지영
이 여러 모라는 권화를 한 모양인데. 그가 시간만 데려 가질 한
모양이요.

이 편쓰다가 들것을 계속중이요 권화가 말한대로 재귀하는
그 개월 동안 배우고 약 그 주를 호혜공부로 강제로 실행했다. 그리고
시험 때는 날씨가 좋기로 보여 주느라 동행했었다. 저녁에 시험
끝나자 권화를 주었고. 예상은 애초부터 수련 불가능이었던
데 이외로 영어 (80) 독어 80-90) 정도로 예상하고 철학
은 별 자신이 없으니 잠깐하지는 않았다고. 저녁 늦게 도착
했는데 시종 박을 흐렸으므로 그래서 네가 입학하면 정말
진짜가 아니야. 너희 학과도 흥분하고 하고 있지. 아예 바
다기 그 만큼 했다고 내게 처음(?) 사의로 들었는데,
10미 발도 한대 하.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일 생각해야지

지난번 이번 학기 끝나고 들었는데 작은 아버지 부부가 형님 처
나는데 하나 양태지만 남쪽 조용한 곳에서 작은 아파트 원고
이사해 살겠대고 했도 서울에 있는 출판사가 와다는 것이로 ^{출판} 회사
의 변화는 특히 가정의 밑바에 제쳐두고, 그들은 직장도 없고
그러고 영구 결혼식하고 나서 여년지 허탈해 지는 모양, 서울
이 살기 실증되느라고 눈코통기 시만대고. 그런데 가정에게 매
해 두다 뭘써 서울(?) 해 한 바늘이었도. 우선 시장 물건 다 나와
부엌이라도 일체 가족이 일원으로 해서 조그만 할 마릿 씀이
있고 활거히 자기 밥 거두는 것 까지도 위존적이라는 거로 그렇
도 듣기 오는 가정이 알기. 들리 불만이 노출 됐도 '더제야 나'는
'다 한번 아버지 차드림가면?' 라는 말도 듣기 불일이 없디웠고 했
도. 밖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Care를 잘한다는 얘기 부모에게는
그런 모양. 그애를 독립 시키기 위해서 여내에 한 리는 거로
주변을 보면 노부부 딸들이 쏠로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해 가족 제도 결국 체리려봐 '학' 시고도 습성이 자포한 외로움
이 많거리는 것이로. 분명히 생활 수준은 올라가고 돈이 그러하
시거리는 쪼찌고!

~~나는 데스크 때문에 불편하지 친의 호화는 몰라 그분들하고~~
~~결국 병원 방문 (이 이야기는 기꺼이 했군)~~
추광은 내 쪽까지 오형해서 봤는지 내가 그럴가 했는데 짐입에
재 바르게 성사시킨거지 양장 다음날 11시에 오라고. 그도 뜻밖
인 모양. 재 나중으로 존중의 표시. 나는 그가 동일연구를 주제로 삼
은 것으로 잘할 일이라는 것. 동일과정이나 동일한국도 기해 자중 하라는
것. 그러고 함석헌 선생 기념사업 고문 주각등으로 말했도. 그는
정형했고. 또 고문 되는 것은 주각 했도 그의 생의 관점은 한 생 각

은 없소. 전보다 훨씬 한가한 모양. 이희호 씨에게 새로 나온 바자회 한
켄 주고 왔고, 전날 이해동목사 부부가 왔었는데 이희호 씨 관 다리가
아파서 몸씨고생이 모양이고, 직립 자상한 현지라도 하지요. =
이는 내 이야기로 해 하든 모양이고 별이 내를 한번 찾아와 리며 이나도
나누고 싶고, 후광이 있으면 바자회들이 흥지기는 모양인데 모두 그아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இரு하지는것으로 보아 할길은 여두워. 백주당에서 나온
내제대들게 (전국+) 이 여성 20%로 국회에서 재청하지는 않아 나을보
양. 이래도 저래도 바뀌는것이 있고, 당신은 지금까지도 지명도는 높은
모양. 누구나 알고 있듯은 나를 인척부려온 TV 기자들도 잘 알고
있지? 재원이가 이번 시험때 면접하는데서 아버지는 안행부 부처지?
그러면 어머니는 백영숙 의원 이겠군 이라고 했대. 그래서 이애는 뒤,
동숙을 봤고 잘. 재원이 형일게서 이애를 들으니 무슨 안도감이
생기더. 다시 생각하니 부담감이 들더라구. 영삼이 정치장으로 활동하고,
정치정령이 바뀌될 모양. 군부도 그러고 보정당 세력도 쏠쏠 못하
그러나 이형부게는 한사람되기는 아무도 없다는 인상이 느껴졌어.
누구도 그를 저승길 사람은 형부대기는 없으리라 는 느낌이고, 그러면
그게 위험한 정부지? 그의 친구 주구는 전에는 바깥칠 정도. 언론도
그 무효맛도 반듯한 비판 못하. 차츰은 그들로 뒷바라질 할 터이
없이 전혀 결집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현상은 이형부나 한명이
아니라 전대적 큰 변화가 중속도로 일기 때문이요. 이러면 불행
실 시대도 있었을것 같고요

그애들도 제각각으로 서로 열심히 인생을 통솔하시. 하여간 무엇이나
 될거요. 지난번 독이 가르쳐준 그 어떤 관념 된 대화가 '나도 이해하거면
 됐으리' 중겠어요. 라고 했기 그것은 형식상의 문답이 아니라 사고의 깊
 어서. 하여간 독이 때문에 나와 감성적으로 더 친숙해졌고 내 앞에서
 자신의 독기를 해독 하려 내가 잘했다고 하면 정말로 고맙네! 내게서
 칭찬받은 일이 없었어?!!
 이노예로 나는 지금처럼 매일 기쁘게 맞는데 모든까지 시련을 분명한 차이를 느끼고
 있고. 정임이의 집으로 한노래의 아내면 못했을까요, 아마 당신의 감이후로
 할 아픈날. 하르도 없었지. Life without pain 은 상상할수 없지.
 그런데 이 2-3일 사이만은 하르도만 군소리 없이 산기로 심장은
 94 중순에 좀 불안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자각증상이 없고 작년
 치열한 환절기를 무사히 넘겼으면 하요. 입맛은 전혀 없으니까 먹고, 오
 뱃살은 그것은 좀 생겼지만. 나는 솔직히 '어른이' 된 탓으로 감투를
 뽐내서도 다 군감하지만. 연중 신학회장, 한일신학교총회 회장
 한석현기년사업회 회장, 연구스 이사장, 그리고 무이동량가장, 그런데
 이집에서는 모두 공부하는 년들밖에 돈버는놈은 하르도 없었어?!!
 당신 영명이 려인가? 우리 집 아즈메에 도 좀 그릇은 깨지만 충실하게 출근
 하고 머스르 읽지 않고. 또 이번 연구스 20년 기념 모임은
 국제적이었는데 결국 나의 업적을 경축하는 분위기였고. 미안하게.
 연구스 전총회기가 결국 나왔는데 아미 내면 보거나 전총회 시작할거요.
 그래서 예전의 부경도의 기준 밖에 없었어 문제. 그리고 내전집
 을 그동안 곡절도 있었어. 근데 중매 20원 다해서 넓기 참이요.
 은 별달 동안은 별로 진행 못했어. 정임이에게 시간 많이 주었어
 또 나도 별하기가 너무 아픈이 심해져. 내게는 영숙 정임 지영 혜영
 네 딸과 제각각이라는 아들 하나 있고 이들이 각길로 제시하러 별거 극이 제각
 하게 하는데 내 과제로. 무신복처럼 먹고 현재 수를 살수 있게 하고
 정임이를 내 새끼 (경애학석사님!) 돈은 별개로 어떤데로 시련
 화해 할것이나로 구상해야지. 이것은 음신이 돈투기 해도 충분하리.
 명자를 모았듯이 권세자들을 할려서 '여성의 집'은 사서 보내주시요. 무언
 하게 그분께 들었었는데 한 명숙이가 당신 얘기를 하려나 나더러 광치

기분을 위해 해야 한다고 했더니 내가 양생기(양생기)를
이러이 했더니 사실은 자기도 박달생님이 부탁해 주셨다. 그리고
그도 이제 조금씩이 형 비웃는데 이따가 가서 좀더 + 되니까라도
꼭로 해주고 싶다고. 그러고 여자(김은)도 내가 아주 상심해 놓은
으로 재탕이 된다고 해. 하얏트 "그렇게 불태우는 몸이든 든든리
양생기 아내의 자기 때문에 위(하)서 유학 식한다"고. 그러나 나
두 사람들은 다른(한)해인 모양.

이제 그만 쓰자. 무엇이 더 듣고 싶으냐? 이연아! 생애
듣고 싶지? 옥목병기 근진거기지 이연아!

무기 통배지를 입고 만나다. 그영영이로 히들로맨서. 하긴 영국
연들의 영영이든이 하든 그 상의적 위안을 받게구나.
12월은 네가원하든이 이리 해 3월 나에게는 맞지도 않지. 생각해 보라
내가 좀 구두쇠이긴 하네! 그러고선화 4월엔 나만생애로 가는
시간이 있단다. 그때는 화제가 나오도록 계획 해라. 그때는 못 나
이유가 적혀 있고 또 나오게 될 필요해지기도 할것같네. (기쁜)
지금 보사복장관 (기쁜 신을 기 해해 대해 크게 평가했든) 이직취직
으로 원하든이 너로 좇은일이 있다)

그리고 영국 대학교 진학(지리)에 대해서 알아보아라. 시험
걸 붙여까지는 일해 말했든다. 독일은 미국에 대학은 대학원 나
박사 과정이 수음되니까! 그러고 영국에 얹히기하면 ~~대학~~이
아무 대학이나 입학시켜 상사알게 하라. 그러나 그런 것은
과정의 영국에 너의 열매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 영국 배우는
것도 좋을것이다.

이말쓰자. 오랫동안 좋아했든이 졸속이 아드
+ (상)하에 새진것은 잊은것이다 다시 읽지 않게
그대로 복치했다

그런지라쓰고 싶어 밤 7.45분. 나혼로있다 밤늦고더 내내까지

1993. 10. 14

비밀
그리 올림

이라님께.

이모께

1993. 12. 22

정확히 하면 지금은 밤 1시 나가 23일 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혜영 명숙 할아버지와 둘다 밤 12시를 오는데 경호삼중 유경이가 하루자고 내일 면접한다고 오는것 보고 외서 짐싸려다 명자 올나.

할아버지 사진 (MRA) 등은 필요할만한것은 다 copy 해서 오늘 찾아왔어요. 어떤의사들이 2번전 것이라 (입원했을때) 별 소용없을것이라고 하기는 하더군요.

하루 등이 아픈가까 잇발아들것은 잠이 두었었는데 잇몸에서 자꾸 파가난다고 하시고 아침에 보면 베끼잇에 자꾸 다가 들고 틀어메는것이 편하신지 밤에는 물론 낮잠은 물론 꼭꼭 잠고서 주무시고 두어달전부터 김치 한 조각도 못드시고 ... 어제 드디어 잇과에 가셨는데 홍선생님 연락했더니 ^{어제} 옆에서 지켜서 치료하고 있었거든요. 제국에는 김치도 드시고 사리를 다 드시더군요. 진즉 갈걸 ... 며칠후 한번 더 가야 되는데 신경이 노출되어 잇있대요. 2번 등이 너무 아려 잇발아들고 틀어 메었거든요. 안경이 닳수가 안맞는지 불편하셔서 다음주 치과에 갈때 (중8병원) 안과도 들러야 합니다.

등 (디스크)도 ^{중8미남편} 홍선생님 사위 (서울대 병원 정형외과)가 남장원 교수에 나서서 한달에 한번 진료 가지니까 ^{사전 copy 가기로 서울대 병원} 증세를 다 말해서 약을 주셨는데 1주 동안 먹었지만 아직 차도가 없는데 - 의사들이 1년 2년 먹어야 한다네요. 2번 이자검고 심한 우울증 등 힘든 증세가 잇었는데 약을 먹고 (8일 동안) 바로 2 증세가 여전해서 약때론이 아니었다고 판단, 다시 시작 했어요.

홍선생사위의 등성모 중8병원 정형외과 의사인데 자기 뭘 하고는 또 좀 다른 style, 내일후 하루 한달 먹는 (나이많은 환자들에게서 특히 한다고 함) 어떤 약을 주겠다고 해서 공항에 혜영이 데려다 주고 가져려 갑니다. 20~30년 된 환자로 2약을 먹으면 일단 아픈지 양대까지요 (좀 주먹대요)

2번의 제가 보면 물론 병도 잇겠지만 아버지는 참 「기분」이 많이 좌우 되는것 같아요. ^{초생이했지} 재미잇는 이야기 하거나 강의 설교 등에는 잇어 버려대나께요. 너무 심하게 아픈다고 하시는 늦은 작은아빠. 엄마 외라고 했고 몇번 좌우시고 갖고 하곤에는 연남들이 후가라 많은 연남들이 자고 갔는데 2번님은

가워주시다 분명해야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미루게 된다고
하시는 성격 때문이신거 같아요.

좀 괜찮거든요. 재원·제원제 등을 생각하시면 더 자증이 나시고. 더 아픈신거봐서
하여튼 애바성직에 한살을 참았으려 거의 매일 가셨는데... 세브라스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김영수 박사에게도 가셨었어요. 예약환자가
6개월 밀렸고 초진은 1년전 걸린다는 의사인데 우리는 아침에 전화해서
오전에 갔었어요. 김성환 목사님 계시잖아요. 전국 도우뚝받고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돌려대지 않겠다고, 1조각한 기분이었어요.

× 내일 약을 가져다 드려보고 한 일주일씩 전파드릴게요. 헤밍이가
사진은 가져가지마고도 휴일이나 전진이, 배려가 같지 않군요.

헤밍이가 아픈걸
Visa 카드와 여행과 수표 (USD 2,000 부터 못미쳤음)는 받는 즉시 이모씨인
해 놓으세요. Visa 카드는 미국으로 돈이 있고 은행에는 넉넉히 입금시켰어요.
평생에 한번 기회로 공부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기재하시기 마세요. 이제 몇달
남지도 않았는데...

영어식 문화는,
아버지는 먼저 말하는 세계 (말을 표현 못하는 세계). 외로움, 헤밍웨이의 마지막, 허두 죽을
등이 생각하시는 호모소 인자 같아요. 죽을 보람은 이영득박사의 영향인데 큰 충격받은 사람 모양으로
보람 그들을 오래만에 1월 1일에 보냈어요. 4호는 바로 FAX에 넣으세요. 지난해, 이번주 성공도 감동내용임바.
아버지
제전이는 2주만에 침 만나 뵈는 마친 진로문제를 이야기 하질래요. 유학가기로
정정한 모양. 자세한 이야기는 편지나 전화로 직접 말씀하실꺼예요.

중에서 2번 쓰겠어요. 인생이 계속요.

정임드림.

because 지금이래도 독자가 보려면 내보내야
사건은 많았는데 하전라기는 하고... 집 들고 아사가면 어떻게요? 아담하게
아주 작게, 예쁘게, 평하게, 설레사와 이모가 의논해서 기으면...
다실의향 있으신지... 이평하는 다 보시고 찍어내주세요.

늘 존경하는 이모께

1993. 10. 3

날씨가 무척 쌀쌀해져 물씬 한국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Macy's에서 일을 하고, 드디어 Macy's Card를
받아서 FAX Machine을 샀습니다. 작은 언니가 심부름 감을 주었는데
꼭 Fax가 필요해서 할수없이 Business상 샀습니다.

번호는 전화번호와 똑같습니다. 내가 원해서 woman's shoes Dept.
에서 일하는데 무척 생각보다 힘들어 하루에도 여러번씩 관둘까
하다가도 일이 끝나서 집에 오면 또 그다음날도 준비하고 새마음
으로 근무하곤 합니다. 추석날 한국(우면동)에 전화드렸더니 할아버지
께서 "아이고, 너는 왜 그렇게 할머니를 살찌워보냈냐. 영국에서
할머니보고 돼지라고 그러다고 무스너더군요. 목소리가 무척이나 건강
하시게 들렸고 아주 밝게 들려 아주 좋았습니다. 재권이도,
작은언니네, 큰언니랑 도라가며 한아디씩 하고 이모께서 짐을
많이 가지고 힘들게 가셨는데 고생이나 안하셨나 걱정했더니
언니가 다 편히 가셨다고 해서 늘 걱정했는데 다행이고, 또
이모께서 편지를 써주셔서 이모께서 오실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짐을 들고 기차타러 왔다갔다 하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제가 내려가도 괜찮으나 정말로 편하신데로 하세요.

학교가 시작하고 지영이는 Art class에 학교시험, 숙제에 바쁘고
인경이도 공부, 숙제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승마를 시작해
아주 좋아하며 지냅니다. 자시라는 여전히 놀기 대장이고,
스티브도 저도 잘지내고 있습니다. 영호삼촌은 Florida에 집을
다 물려서 10월 5일에 식구가 서울에서 다 온다고 합니다.
오리삼촌도 별로인데 이모께서 온다고 해서 아주 걱정을
했는데 다 맛있게(?)잡두시고 편히(?)계시다 가셔서 아주
좋습니다. 이모 말씀대로, 방이 하나더 있으면 누가와도 들
분주할데데. 그래도 아주 가까운 식구들만 왔다갔다하니
항상 즐거운 마음뿐입니다. 이모께서 차분히 공부하시지는 못했지만,
(정리→SeminarReport)

아박사님께 전하드려 주소를 여기 알려드립니다.

Dr. Lee

747 Shoshone Trail

Franklin Lake NJ 07417

이모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허리가 많이 아픈상가 하고요. 수술이 아주 쉽고 그런데 고생하신다고요. 이모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 따뜻하게 옷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만가방에 뭐든지 넣고 무게를 질때 이모 힘으로 겨우들어 올리만 하면 거의 70 LBS 이예요. 필요없는 것은 가지고 오시면 혜영이 편이나 언니편에 보낼게요.

재미있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제일먼저 건강이예요.

이제 3주 있으면 또 뵈겠네요. 미국이 오시면 전하하세요

아이들이 게타 가재 Party 를 기다립니다 (하하) 정혜 올림

Do not use tape or stickers to seal. No enclosures permitted.
1 Fold first at 1 inches

2 Second fold

AEROGRAMME • VIA AIRMAIL • PAR AVION

Young Sook PARK
162 Chesterton Road
Cambridge CB4 1DA
United Kingdom



Mrs S. STAUDINGER
2 Wake Ct.
Eatontown NJ 07724
U.S.A.

3 Seal top flap last

3 Seal top flap last

어머님 전 상서

엄마 영국 간지도 벌써 7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이제 카드까지 포함해서 겨우 두 통제의 편지군요. 그래도 제가 철이 좀 든 것인지 아니면 외려 더 어려운 것인지 보고싶어져요.

하지만 이렇게 편지까지 쓰게 된 것은 좀 실용적인(?) 이유네요.

용건부터 말씀드릴게요. 저 빨리 서울을 뜨고 싶어요. 화선이랑 관계가 깨지면서 괴로워서 견딜수가 없네요. 사실 그러면서 대학원 공부도 실기(失期)했고,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서울이라는 곳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는 더이상 제가 자신의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듭니다. 아직 젊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이제 더이상 그런 허비를 하기에는 좀 나이가 들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대학원 시험 봐봤자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하고, 혹여 붙는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식으로 힘들어 하는 과정을 다시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들고...

아버지께서도 말씀은 안하시지만 아마 저의 이런 상태를 눈치 채신 것 같아요. 대학원 공부에 대한 채근은 별로 안하시고 독어 공부만 열심히 독려하시는 것을 보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차피 서울에 남아 이렇게 허송세월 가슴만 아파하고 있는 것 보다는 빨리 이 땅을 떠나 마음도 정리하고 차분히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혼자서 독일로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구, 영국으로 일단 가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또 혼자서라도 (이제 어느정도 탄력이 붙었으니까) 독일어 공부를 해서 한 일년 체류하면서 독일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영국에서 곧바로 독일로 가고 싶어요.

누나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던지시 했고, 아마 틀림없이 아버지 귀에 저의 이런 생각도 들어갔겠죠. 아직은 제가 함부로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좀 구체화 된 다음에 저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영국에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알아봐주세요. 가서 어머니 거기 계시는 동안은 어머니랑 같이 있고, 또 그 뒤는 생각해봐야겠죠. 영국 학제가 저같은 게으른 자에게 무리가 없다면, 이제 새로 시작한 독어를 가지고 독일로 뛰어 드는 것 보다는 영국에 남아있어도 좋겠군요. 그래도 영어가 조금 나오니까.

그래서 차라리 가능하다면 대학원 시험 기간이 되기 전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시일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붙을 수 없는 대학원 시험에 일부러 응시하는 것도 우습고, 그렇다고 여기 앉아서 그냥저냥 세월만 보내기도 뭐하고.... 무엇보다 마음을 빨리 정리하고 싶으니까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네요. 어쨌거나, 어머니 공부 재미있어하시는 것이 반갑고 무엇보다도 부럽네요. 저도 빨리 마음을 정리하고 공부에 몰입하고 싶습니다. 누나도 공부 무척 재미있어 합니다. 그것도 참 좋네요. 누나는 조금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일단 재미있어하니까... 옆에서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비록 통계 시험을 망치기는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요사이 침을 맞고 계시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조금의 변동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미국에서의 수술이 확실한 것이라면 빨리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일을 못하시니까 무척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 며칠은 좀 편찮으신지 조금씩 다시 일을 시작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러면 저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조금더 구체화된 계획을 제가 빨리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지 않고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어머니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와 상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편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1993년 10월 20일 새벽...

재권 문

Dear 할머니!

1993. 6.8 (화요일)

Hi!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할머니 편지는 잘 받았어요. 제가 걸음한 것보다 대답해주어서 고마워. 이제야 응급했던 것이 풀린 것 같네요.

제가 딸 다친 것 알고 계시잖아?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목요일 "특별 활동" 시간에 농구 하다가 공을 잡으려고 했는데, 어떤 남자 아이도 그 공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두사람 부딪히게 되었는데, 손목은 어떻게 했는지, 왼쪽 손목이 부러졌어요. 처음에는 머리가 캉캉 돌아서 아픈 것도 몰랐는데, 점점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휴일에는 학교에 갔다가 주치랑 집에 다시 왔어요. 이제 아프지는 않는데, 거북수한 것이 너무 너무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고 간지러워요. 아픈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부어 이렇게 살아요. 학교 아이들은 딸이 다쳐 나서는 잔뜩 했어요. "빨리 나아라", "저를 무슨 못해서 중했어", "재수가 있었구나" 등 여러 가지는 썼어요. 한 아버지하고 엄마도 썼어요. 할머니도 쓸 수 있었으면... 이제 체육 실기 평가 (배구, 매달리기) 다 마친 실기 평가가 있을 것인데, 저는 못해서 너무 싫어요. 헤닝, 논구도 못하고... 하지만 패는 못 차게 된 것만 좋아요! 그리고 제가 딸을 다쳐서 엄마가 너무 괴상하는 것 같아요. 뭘도 시켜주려, 머리도 빗겨 주려, 옷도 입혀주려... 제 일은 다 해주셔요. 너무 사랑하고 사랑해요 (나중에 한 통 내야겠어요!)

이제 6월 17일이 토요일이 된 것 같아요. 전국 중학교들이 다 보는 "전국 만인 행사"인데 딸이 불편해서 공부가 안돼요.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 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번 시험은 너무 자신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제가 잘 돌아 다니고 있어요. 엄마와 내가 우편통에 잘 때도 있고, 할아버지가 제가 집에 만날 때도 있고요. 이제야 할아버지가 왔다가 가셨어요. 요즘 밤맛이 괜찮다고 하세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맨날같이 잠수하고 계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하고 나하리 둘에서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고요? "목수수 빵 튀김"이요! 하루에 한 봉지씩 계속 먹어요. 너무 맛있고, 너무 잘 먹어서, '살 쪼이면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했지만, 다행이도 엄마가 그거는 별로 살을 안찌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살 빠지셨어요? (빠졌으면 얼마나 빠졌나요?) 책은 몇 권 정도 읽으셨어요? 방은 안 옮기실 거예요? 할머니가 무척 보러 싶네요. 이번 여름 때 나날을 계획은 있으세요? 입니, 인형이네는 돈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몸매 얼마 안 남았네요. 6월 24일에 돈예요. 할머니도 그때 나으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치하이 ~~고맙~~이요. 이제가 공부재로 가는 것이었는데, 할머니이 출차와 생체서 줄은 채웠어요. 이제 아반에 승용이리가 그개나 있어요.

할머니, 혼자서 상상하지 않으세요? 외성도 주방 밖에 안하셨어요? 어쨌든, 좀 멋있게 살아요! 방도 좋은 것만 옮기고, 시세 구경도 주말이나 쉬는 시간에 좀 하시고, 맛있는 것도 가끔 해먹으세요. 온갖 잘된 것은 이제 안하시요? 편식은 안 하시요? 상추쌈 많이 잠수신다고 하셨지만? 저러면 요즘에 상추쌈 잘 해먹는데,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상추가 특별히 맛있는 것 같아요. 앞 집에서 농사 지은 것 같아 주거든요.

할머니, 아예 쓰고 싶었던 것은 다 쓴 것 같아요.

그럼, 전갈하시요, BYE-BYE ♡



Sincerely,

혜영

P.S. I MISS YOU!

P.P.S. I ♥ You VERY MUCH!

TO OPEN SLIT HERE FIRST

보내는 사람

From

Hae Young Moon

강남구 개포동 우성9차 APT.

902동 121호

Seoul, Korea



받는 사람
To

Mrs. Young Sook Park

c/o Mr. CLIVE BOWYER

162 CHESTERTON Rd.

CAMBRIDGE CB4 1DA

United Kingdom

AEROGRAMME

항공서간



접는 줄 FOLD HERE

이 항공서간에는 아무것도 넣지 못합니다.

No enclosure permitted.

Hyong Yoon Byun
122-16 YangKangDong, Mapo-Ku,
Seoul, Korea.
Chairman, Board of Directors
Korea Institute for Environment
& Social Policy
29. July 1993

The Chairman
Fellowship Committee
Clare Hall
Cambridge CB3 9AL

Fax 44-223-332333 RE: YOUNG SOOK PARK

Dear Chairman,

Mrs Park has been one of the most prominent social activist in South Korea crusading for human rights, political reform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over the past three decades. Not only in social movement but in party politics she has also been active. Once leading the opposition party in South Korean Parliament to which she was ~~elected~~ ^{former}, she showed an enormous talent in the introduction and passage of many key social legislation including the law of equal opportunity for women in employment and a number of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In recognition to her contribution to ^{the} environmental movement, she was ~~also~~ chosen as 'the environmentalist of the year' in 1990 by the association of Korean newspaper reporters, and it is probably fair to say environmental protection is the very single cause to which she has been most committed.

~~I have known her~~ My acquaintance and friendship with her spans over the last two decades, yet I have been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her since August 1990 when I retired from the Professorship of Economic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ccepted the ~~Chairmanship~~ ^{Chairmanship} of the Institute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Policy which Mrs Park founded and directs. As a result of lasting relationship, both official and personal, I have come to

recognise her as a person of ~~considerable~~ ^{of Board of Directors} immense ability, possessing both a stimulating intellect and a high quality of leadership.

Presently she is based in Cambridge for study and research in a wide range of environmental issues in EC countries including those in Great Britain. Her research there, I am sure, will greatly enhance her knowledge on those issues while opening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them.

I thus strongly support her application for the Visiting Fellowship to your distinguished society. [I have every confidence that, if admitted, she will make excellent use of this opportunity and always remain a close friend of Clare Hall, of the Cambridge and of Britain.]

Yours sincerely,

Hyong Yoon Byun

By air mail
Par avion

Royal Mail
International

Aerogramme



Great
Britain
Postage
Paid

Dr. Mrs. Wen Kyu Lee
749 Skokone Trail
Thandelin Lake N10 9W7
U.S.A.

To open slit here



To open slit here

1 PP3. 8. 4. 0. $\frac{3}{4}$ 10.00

[illegible]

2526 m.

1 PP3. 11. 9.

법사 뵈옵시나 시시우 드려야 할다스 생각으로 망신인것은
조선왕님께는 관습은 감사의 밭이라 문안은 들려서도 응답다스 이런
의유것 때때로 있음.

정지현님! 잊었지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잊어먹은 한 사람이
그 장을 떠나 잊었던 그 이들을 집으로 가져와서 잊는 분에게는
남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해박한 지식과 그것에 어디까지 부하
미련을 해박 해박한 기어 잊었듯이 이렇게 누워 있었지.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지켜해 주시는 일에 대해서요. 저는 두번밖에 볼 일이 없었지만 그 짧은 기회에서 대접받았을 정도로 감사할 수 있었던 우선장님의 일면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작해 있는 우선장님의 또 하나의 장점이 있기를. 일한 데리고 나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계시기를.

먼저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기로. 저는 현재 Cambridge 대학의 지리학부에 소속되어 이 학부가 전문적으로 개척한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Mphil Course의 visiting scholar로서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 미시각으로 보면 Cambridge 대학의 제3로서 학문에 주력하고 있는 College 소속도 되어있고 현재 제1 College인 대학은 College인 Clare Hall입니다. 이곳에서는 Study Room을 비롯하여 연구실, Research Work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말씀드리고 있는 Visiting Fellow로서.

그동안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에서
평부가 하고 싶었지만 계기가 안들어지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아끼고
자주하나라도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개인적인都合에서 그러 15대를 위한 여성들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공인으로서의 처지에서 볼때 어떻게 그런 결단
을 할수 있었는지 하는것이 궁금하네요.

주께서 말씀드리면 지난 3주중순에 있었던 민주당의 전당
대회의 결과에서 저에게 던져준 질문에 주저없이 그런 결단을
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

신정부가 3명의 여성장관을 임명하면서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관심하는 시점에서 그때까지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앞서 있던
지나간 민주당의 대의원의 정책이 창당 이래 최초로 우리
새 정부 여성을 관장시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6000여명의 힘이 모아진 결과여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선출한 국민적투표와 철저한 계파정치의
신호등으로서 순간의 정책이 아니라 장기간의 힘겨루기에서 저가
정당에서 여성들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수 있는 정책이라고
여겼던 여성추진위원장을 접하면서 앞으로 사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여성정책에 대한 약속을 예외할수 있어서 분노 하였습니다.

동시에 저와 뜻을 같이하며 함께 일하던 당직자들이 저로
인해 (관심하 주위의 시선에 서지 않으려 함) 오랜동안 임했던 자리
에서 저거리는 자리에서 이윽고도 할수 있었던 저의 정책적

죽어 대한 전복한 회의를 느꼈다. 15대 총회에서 여섯
대의 약국이 유자회를 가족들의 판단대로 거의 360도로 인
하고 물려줘 잊어주어야 한다. 반부패법 제정하의 의사들이로서
그러나 또 한번 냉정히 자기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기회로서
정치의 현상을 일단 벗어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개인이 편이대로 생각한다면
그 결과는 이미 확고하다. 그러나 마음대로 행동할수 있는 자유권 확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 고려할 양과 있다. 이를테면 2대의
상황에서 여당들과 함께 의결해서 그들의 압력에 결과가 리어하게
한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로 환경문제에 관한
있는 정세에 들어가기전에도 했던 일로서 앞으로 계속 할것이다. 또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더할수록 더 큰 조치가 가고 있다.

최근 한쪽을 다녀왔을 4월 1일이후이다. Cambridge에서
환경문제에 관해하기 위해서 3개주(뉴잉글랜드) (7월 5일에 한국도록 하전)
환경정책을 위한 조약에서 2등으로 있어 Termination 일하는
일을 위해 2대 세계의 환경운동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사실들을
알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왔다.

7월 1일에서 8일에 걸쳐 6주일은 Asia 지역의 주으로 미국
State Department의 US-Asia Environmental Partnership
Program에 참가해서 우리들의 생각한 현안이므로 하는 신세계 차
이제나 재협동(의)에 대한 공부를 했다.

최근 지난 10월 16일 ~ 26일까지는 다롄시로 Asia 지역의
시점으로 여당들과 더불어 4차에 걸쳐 국제 forum에 참가하
고 있다. 매우 중요한 필요했던 과정이 있다.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지만 새로운 다짐도 하게 하였음.

제가 Cambridge에서 지냈던 공부에 있어 부분은 ① 영국에
공해처리 Case Study를 하고 있음. 영국은 산업화도 먼저 되었지만 공해
문제도 앞서 직면한 관계를 어느정도 2 case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음. ② 인위 산업화 과정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든 하는 문제인데 EC국가간의 환경문제를 빈번히 이러저러 하게
③ 영국은 환경을 지향하는 나라이지만 국내의 경제사태 등으로 환경정책에 관하는
EC의 어느정도 뒤쳐져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현재 당국에서 인정하는데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늦게 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고자 하는 것을 검토
④ 인제는 환경문제에 지구적, 국제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국제로
하는 것을 고려 국제환경정책의 결정과정과 그 문제점으로 연구하고 있음.
중국, 북미등의 환경악화 정도와 정부의 대응하는 정책 앞으로 될 것으로
국제적 협약등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
인듯 함. 지금의 계획은 6개월간이었는데 이를 시작하는 공백과
Academic Term에 충실하게 하도록 중요하게 생각하여 1년
계획했음.

연속적인 일과 의사소통을 비롯한 여러면의 도움과 동료들의 수고로
매상보라 좋은 결과를 해내어 있음. 최근에는 계간지 발행도 되어
참가도 되고 있음. 장안로를 의사소통으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음. 환경수위로 매번의 것이 전작이 되어감. 환경문제를
위한 중간지리훈련, 정책연구 Seminar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음.

Pen이 가능대로 쓰다보니 이내로 귀한 시간을 많이 보냈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함. 벌써 4월인데도 의사소통의 하시는 일에
하느님의 기도를 기원하며 이번 동안 드림. 박영준 드림

政官衙 주변 누구누구 지명되나

金正齊 徐顯宗 文正秀
李三載 白爾治 姜應主 姜
實卿 在又 文正秀 姜
氏의 爲이 파타하게 나들
고 있는 이 유도 이 때부터
地州伯인 차 당원 金德
興은 오 일한 표도 이후
제2기 조각을 볼해 이
단 형식으로 본래 제위상하
첫째 황공성이 크다는 판
유이 유려하다.
李(國)동생장자 朴熙權
부처 부친장이 다른 지
리물치치하게 될가 짐성
도 장지 장지.
그리고 官衙임자에선
民生주의 대가인 한 오
하린 기대인라는 분석
도 나오고 있다.

金榮鎭민지당총무 李尙
賢의원 廉敎熙 鄭仁昌
周厚正系 중우들이 제법
그럴듯한 이유로 기명회
는데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金壽均는 崔相佐
민지당의인 金德勝과
정관 金正齊민지당의인
金光 鄭仁昌등의 원계

[illegible]

財閥회장 前現職각료 구체물망

경세부처

家臣二番民正系宗[〃] 白薦他薦[〃]

非競爭性

여성장관 경질전제 DJ유권 박英淑前의위도거론

안녕하십니까. 便紙 받고 참도 못하고. 今
 기는 Christmas card도 할장도 만
 다 보니 너무 缺紙가 되서 朴先生께
 電話로 人事하겠다 생각했더니 美
 이 가셨다구요. 마침 18日 新商會 보연회
 朴先生이 行한것이 나으기에 이것을 代
 해서 보낸다 하면서 20日이 되었어도
 南師長으로 불려하다 5 몇일 中 中
 2日 2日 바쁘시오 年未이 되서 덕화가
 오 未日이 改 國 表가 있다 합니다
 흥분아하는 줄로 一山에 계시고 나날
 同이 머물고 있으며 2대도 師와
 같이 바쁘시오 나날 하느일
 글씨 精장쓰지도 不되는 生活하고
 있으며. 今年은 비용이 困지않아
 정월 너무 虛度시절을 보냈어요
 2月이 한번 歸國하소다니 無
 반가워요 기다리겠어요 2월
 데 2대 우리는 外國에 나가 있을
 지도 모르겠어요 Cambridge
 하번 들르게 될거예요

[illegible]

이 성을 이루고 있다. (宋)宋徽宗 黃山城
원칙칙은 정칙은
부엌이라는 것
이 성은 사람도
부엌
宋徽宗 黃山城
원칙칙은 정칙은
부엌이라는 것
이 성은 사람도
부엌

評戲界

椰基泥



해바라기 밭에...

美平夜중에 安靜順氏朴光
을 보고 싶다 라고 電話로 하
시오 2층 孝海 東牧 海西
安博士 외라 가자 하는데 첫 선
대문의 문간 다 했는데 한번 가서
외야 하는데 5年內에 갈수 있는지
時 間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安靜順氏電話는 (H) (301) 770-
4355
(202) 466-3000
Xmas에 祝福말이 받으시요
그리고 健康하고 모든일 뜻대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랑에서 Lee

박 선생님

Card 보내주신 것 반가웠습니다.

모래 놓았던 공부를 집중해 한다는 말은 무척
힘이 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부에 재미 있다는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재미가 없다면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저와 여기 식구들은 1월 일 없습니다.
짧은 의사가 와서 나는 주 2일만 병원에 나가서
로아주고 있습니다. 의무에서 풀려나다는
말은 좋고, 자위스러움을 느낍니다.

특히 인근의 무연문으로 ^도통이 잘라진 밭포가
죽었는데 말썽들이 많아서 잠깐 보류했었지만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산군에 사는
5 IC. 권로 들어간 곳입니다. 문라전 양간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좋은 편으로요.

94년, 이틀째입니다. 이해에 좋은 계획
세워서 좋은 결과가 있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3-12 Daesandong
Mokpo Chunnam

94. 1. 2일 여성숙

한국신학 262-1P 이종영
110-054

93. 5. 15

백 영숙 선생님.

그 동안의 주님이 혼돈의 가운데 평안을 얻으리라 믿고 살았습니다.
이제 마음을 얹을 여지 없이 주님이 데려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회로 선생님들 많은 이야기 나누며 사랑을 나누고 열심히
책 읽는 우리 믿는 자들 전지주 언약이 밝으시듯 주께 내리
기 주변동일 갖길리요. 오랫동안 언약이 밝은 비움과 함께 주께
을 받은 많은 이야기 하고 돌아 왔습니다. 백사님의 주장은
영혼 백은 건강 하신 것 같으나 영혼이 굉장히 작아 지셨으므로
영혼이 많은 분임이니만큼 백사님의 영혼이 작아 지셨다고 해서
더욱은 그리고 더 보고 영혼에게 전지주 해 주라고 하신다고
위로를 해주고요. 무엇보다 백 선생님 생각 많이 하신다고요.
지금 여기 이 곳 생활 너무나 재미가 있는 삶입니다.
영혼. 우리 모두 서로 격려 하며 애정 어린 사랑으로 살며
영혼 회로 모임을 통해 감동이 있고 서로를 기쁘고 미운
이 가득한 사랑방이 존재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는지
감동한 마음에 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듯 동대리 감동
이 항상 있는 동대리 인사를 통해 그 수고를 감내 하고
여삼 동대리 들어 가는 사랑이 재야 되고는 하고 동대리 그 동안
라기 해서도 분명하게 하지 많은 사람들이 이리야
참애의 변은 두리 후에 감동하고 있는 상황이 눈에 앞입니다
백 선생님 각자 생활 전진 전진 하기를 바랍니다
가운데 나리 감동과 공복과 주리고 배고픔도 좋은 것 같은데
영혼 백 선생님들께 백사님에 대해 듣고 듣고 해주세요.
그러나 지금 이곳에 어떤 것과 같은 것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언더 Y.W.C.A 에나 이해하는 후회
가 모인다고 백영숙 강도님이랑 갖길리요
재야 수고의 백영숙 강도님 백영숙은 주님 모임을
후회해 있습니다

93. 10. 5

박영숙 선생님.

참 오랫동안이예요. 9월에 편지를 쓰다 받고 10월로 접어들었습시다. 그만큼 건강하게 활동부에 열심히 하루하루 밀리면서 즐겁고 반고 싶어 불행히 편지를 쓰지 못합니다.

미국 여행도 끝나고 추위로 쓸쓸하게 보내고있군요. 가족들 떠나 미국 땅에서 나의 삶이 쓸쓸함과 외로움도 동반하니 후배의 반납으로 영혼을 위한 전념을 위한 전념이니 박영숙님을 잘 만나서 내게서 믿어 줍니다.

여기 러히름 잘 잊어요. 매번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너무나 재미 없고 삶을 떠나 가고 있습시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같은 삶을 바라는 생각이 생겨 나리니 앞으로 주어진 기회 일대만 열심히 하리니 할까요. 이런 러런 모임에 가끔 가면 뜻밖의 영감을 만나면 모두가 박영숙님 안부를 묻고 합니다. 만나는 모든의 연극에 나만의 생각인리는 물론도 기쁨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들을 모두가 표현이 많을까요.

지난달부터는 5.11 가족 모임을 주선 해주었습니다. 첫번 모임을 이리저로 선생님이 중심을 사기로 했다가 "석판"에서 이기택 부인을 우연히 만나 그분이 중심감을 내는 바쁘게 또 한번의 공짜 중심이 생겼다고는 해서 모두가 웃고 즐거워 하니까 이야기는 너무 재미있습시다. 그런데 모든 두번째 모임은 모였는데 오늘은 김형이 한턱을 낸 셈이 되어 또 공짜 중심을 먹고 풍미를 보았습니다. 그렇어서 석중씨와 나는 떨어져있는 마음을 편히 비결하기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리저로 선생님이 미국 여행중이신 바빠서 만나서 정말이 쉬어 하시든 박영숙 장로가 무중이 아니라서 외출은 못할 정도에서 못나오 있습시다. 그 건강 하시든 분이 나오리 못할때 심히

※ 이것을 지난 9월에 쓴 만 편지에는

백영득 선생님.

어느새 성품 가운데 담긴 9월의 초풍은 마구 하고 보니 계절의 변화 없이 인생의 무상을 느끼게 되더군요.

그동안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자주 듣고 있네요. 어제는 안장님 선생님을 만나 백선생님의 존함을 듣고 건강하다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혹이나 함께 동고동락 할터 셋이 많은 이야기 나누었습니대 미국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영국의 나의 삶이 즐거웠을 일기 들 읽어 보며 그때도 조금은 위로와 질때의 귀로 들으 려기 위해 편지를 띄우는 거랍니다. 여기 한국은 그런대로

충격 요법의 찔끔순 령치 한도 없이 여도 야도 모두는 군사 독재 이닌 문인 황민대 독재의 쇼에 뉘이 나간 독이나 모국의 분치는 심리배 즐거움도 기쁨도 없는 것이 많은 사람의 삶인것 같으니 독이나도 신아남 보는 삶을 산다는 어떤 노 목사의 생활이 홀로 깃발을 밝히는 있는 상황이랍니다.

백선생님. 무미 건조한 현대 생활에 몰려 있는것 보다는 실패 앞에 동복 하고 계시 는 백선생님이 부러울때 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한번 안장님의 훌륭 하심에 감탄을 하고 반전의 감심감 이라고 백선생님을 말하느 사람도 있습니다. 즉 부자도 남제 죽고 가서 공복을 할수 있대 는 하느것 많이에요. 지난번 유엔총회 갔을때

백선생님 건강 하신것 같았어은 영남이여 지극 감동이었으니 격려를 마네은 정국 절충부에 준거국 으로 리히 치부 해어은. 작은 엄마가 큰 엄마 있어 버 남남 하다고 말씀 하더조은

재려의 모처럼 모듬은 너무 많이 어긋 내것 같아은 전천 하늘때 비다 안쪽 집이 들어 타 있고 머하느것이 너무 어긋 느려히 리것 대편 해 보아은



Dec. 30. 93

백미사님 !!

자네 갸우치 잘 보았어.

오늘 .. 내일도 생경하군 이었어.

그동안 똥은 똥이 있었어 생경하군.

너희 여자들도 생경하군 주시는 마음으로 잘 생경하
고 있어.

이제야 good News 이 있어.

내가 이번 4월 부터 8월 까지 4개월간 Oxford Univ.에서
Fellowship을 받음 공부하러 가게 되어 있어.

이번에 내일도 아가씨께서 생경하군.

이생경하군 많이 생경하군 생경하군.

자네도 많이 생경하군.

그동안 많이 생경하군 생경하군 생경하군.

아니 생경하군 생경하군 생경하군.

생경하군 생경하군.

이번에 'Women' 생경하군 생경하군.

" Summit of

너도 생경하군.

생경하군 생경하군 생경하군 생경하군.

생경하군 생경하군

선생님께 !

건강하시고, 재미있게 지내시는 것 같아 저도 매우 기쁩니다.

연구소 일은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8.25일은 "국가예산과 환경예산"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세미나 자료와 7~8월 신원스케줄을 같이 영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자료집도 나오는대로 보내겠습니다.

- '환경과 사회' 특간지는 10월 중순쯤 발행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원고는('미국에서 본 리사이클링') 9월 15일~20일 사이는 꼭 도착하도록
해주시고, 아시아재단 공문을 읽어보시고 도와드릴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다들 기쁘게 반기기

- 10월 중순 이후 국정감사가 끝나면 제2회 환경정책교실을 열려고 합니다.

- 8.22(일)에는 이해찬 의원님 후원회원들과 함께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자연농원 모듬수 처리장, 고려피혁 폐수 처리장, 호소수질연구소 등을
다녀왔습니다. 정안천이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설치후 많이 좋아졌더군요.
호소수질연구소에 갔더니 김대중 대표님 선생님이 방문하셨던 사건이
붙어 있어서 새삼 감회스러웠습니다.

- 묘사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 정치권도 만능모색에 바빴을 것 같습니다.

전국구 폐지문제(정당 득표율에 따른 전국구 비율조정 등도 신문에 거론됨),
기비짓한 정치실현 문제, 지구당 폐지 문제 등이 사향도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갈피를 못잡고 있어 야당으로서의 기능이
개혁정국에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환경운동 쪽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2회 편입을 시도하는 듯합니다.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정부 프로젝트를 받는 단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약간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비문화적인
것처럼 되는 분위기에서, 관련단체에서 모이려 더 적극적으로 실천적인
대안을 찾아 행동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각 단체의 전문성을 살려내야
못하면 운동이 제대로 된 관점에서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반반 청와대 비서관 근무자로 사회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후배를 만났는데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는 여성이 누구냐고 묻더군요. 사실 별로 없어
박선생님 외에 특별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것들은 없지만,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점차 늘고 있고, 여성운동가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어서
운동의 이니셔티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선명함이 오랫동안 외국에
제시는 것이 각 좋은 일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모히려 외국과의 Network을 잘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교육, 세미나 등)
외국 환경, 여성 단체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소나 선생님의 지평도를
넓혀나가는 (일종의 민간 환경 대사)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또 여성운동 내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정치권과 사회운동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세로 지역개발 프로그램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환경화될 전망입니다.
노동권 최고위원은 지방자치연구소를 만들었고, 부산시의 경우로
시민단체에서도 시장 선거에 출마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현반박으로 지자체 환경화기 대비한 환경 행정 인력 확충과 정책 부재,
조세 연구 등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단체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정치권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환경단체 간의 논의를
더 확대시키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을 느끼고
있지만 연구소 사업을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상황인지라 대개인적으로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느꼈던 것을 정리되지 않은 채로 이번처럼 이야기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원진도서 5장, 이력서 1장을 기입하시어 DHL로
보내주세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기안서를 함께 첨부하여 영국의 가시거를 독일로 전차하시어
다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Tel. 0911-6806(주30)-31
FAX. 0911/680677)

* 건강조심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사사 각 사항 꼭 드세요.
자은 여가도 하겠지만 열심히 산책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께

오랫동안 곁에서 일하다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늘 허전합니다.

안 계신동안 더 열심히 일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두 애쓰고 있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마음 평안히 계시다 오시기 바랍니다.

국내상황은 김영삼 정부의 개혁조치에 눌려 민주당과 재야의 입지가 매우 좁아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해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므로, 여성·환경단체만 말씀드릴게요.

- 환경운동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수련과 지역 환경단체들이 기존 조직을 해체하고 새로운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공동대표는 박병라, 이세중. 사무총장에 최열 씨가 선임되었고,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목포 등에 지역조직이 결성되었습니다.
- 정신대문제는 김군위안부 생활기금이 입법화 되었고, 생활기금 마련 국민운동본부는 6월 말로 해체됩니다. 이미경 씨가 일해왔었는데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 한명숙 선생님은 감사원 산하 부패추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여원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 윤영애 총무가 교회여성연합회를 그만두고, 자원재생총사 홍보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윤총무 추임은 윤문자 선생님이 선임되었습니다.
- 이문우 총무가 새가정사를 사임하고, 여성의 전향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이대에 여성신학연구소가 개소식을 했고, 소장은 손승희 교수가 선임되었습니다.
- 손불숙, 신낙균 선생님을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정의사치 만드는 시민 모임' 등이 참여하여 활동 중입니다. (친 YS적 조직으로 판단됩니다)
- 배달환경클럽도(회장: 조윤희 사무처장: 장원) 지역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 안상일 선생님은 6월 한달 일월에 회의참여하고 계시고, 여성위원회는 임명을 못받았습니다.
- 김상희 국장도 부위원장장이 안됐고, 국장 선임도 어려움을 거 같습니다.
- 환경특위 위원장으로 이해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 각 지역별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환경현안으로 등장하고 있고, 수질문제도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 새로 임명된 여성장관 중 현명자 장관이기 나머지 두 장관은 좋은 평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특히 황산성 씨는 실수 루머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고.

송정숙씨는 전문성 부재로 좋은 편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지방자치나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나 수질문제에 대한 외국 자료나 행정에 관한 문제를 공부해 오시면 국내 상황에 많은 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은 박우철씨가 양정색실장이 되어 상근을 못하여 그만 두었고, 박감사씨는 6월 말로 사직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김은영 씨도 자료실 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6월말에 환경자료목록집 발간 예정), 일신을 했습니다. 정홍식씨는 매우 성실히 일하고 있고, 국회일도 잘 해서 몇가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총괄과 환경정책연구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출마련 문화 행사는 하반기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회 회의자료를 보내겠습니다) 연구소는 이제 체제가 조금씩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사회에서 소장대행문제가 잠깐 논의되었는데, 내부적으로 이해찬의원님이 운영책임을 맡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혹시 이해찬의원님이 소장대행문제를 말씀하시더라도 4달 남았으므로 그대로 하고, 소장대행을 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병숙 선생님 의견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거취문제에 관해서는 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국내 상황도 변화하고 있고, 환경단체들에서도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정치를 계속 하시든지, 민간환경운동으로 전환하시든지 올해 말 국내상황을 보면서 여러 사정들을 선생님 오신 뒤에 논의해서 결정하시으면 합니다.

문선경 선생님과 이상영, 김경과 (환경을 살리는 여성들) 선생 등은 여성환경운동 조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문제도 선생님 오시면 의논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김창희 국장은 여성정치발전연구소를 만들고 싶어하고, 선생님과 만상님 선생님, 저를 참여시키고 싶어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안되어 선생님 오시면 의논해보라 하였습니다. 선생님 만나러 외국에나로 가겠다고 하여, 급하지 않으니 그럴 필요가 없고, 선생님과 별도로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당과 관련하여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 같아서요.

아시아재단 주선 선생님 회의 참가 건은 하나는 10월 중순으로 결정되었고,
 하나는 일정확정이 안되었습니다. 7월부터 4주간으로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일정이 결정되는대로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연락 오는 대로 전하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과 떨어져 있으니 정말 보고 싶습니다. 얼마 앞은 병아리 새끼 같은 느낌이
 듣기도 하구요. 선생님과 함께 일한지 벌써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짧은 세월이 아닌데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그동안 일하는 방식이나
 생활태도 등 선생님께 알게 모르게 영향을 깊이 받았거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여러 어른들이 있다고 하지만 선생님처럼 사심없이
 일에 몰두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계기를 기회삼아 좀더 좋은 지도력으로 성장하여, 선생님처럼
 좋은 일꾼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도 열심히 다니고,
 여성.환경.단체 세미나에도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사무실 업무가
 많아지니까 짐이 더 거둬지고 있는데 6월 20일 이전 종강이니까
 그러저러 마칠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자신이 능력이 모자라 선생님을 더 훌륭하게 못 받쳐
 드린 것 같아 아쉽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활철학을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마음편히 공부하시고 돌아오시면 좋은 기회들이 생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환경.여성쪽에서의 기대는 훨씬 크거든요.

앞으로 10년 이상 활동하실 구상도 하시고, 일거리를 많이 가져오세요.
 연말까지 오래 계시지는 마세요. 저도 선생님 돌아오시면 바쁘게 활동하시게
 일거리를 많이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모시고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제 힘이 닿는 한 선생님과 오랫동안
 일하려고 해요.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93. 6. 7일 아침에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건이가 드림

박영숙 선생님께

1322102

박영숙 선생님께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 카드 받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해서 어쩔줄 몰랐어요. 제가 먼저 드려야 했는데, 변명은 아니지만 사실은 상덕이한테 선생님 주소도 오래전에 알아뒀었는데 제가 집안일로 그동안 정신이 전혀 없었어요. 지난 10월에 시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남편이 3대독자 외아들이라 아무도 없고 갑자기 당한일이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정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장례치르고 집에 오니까 시어머니의 어머니께서(시어머니도 외딸이라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계셨거든요)팔이 부러져 그날로 입원하셨는데 워낙 노령이라 2달정도 입원하신 후 돌아가셨어요. 두번 언거꾸 상을 당한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93년이 다갔습시다. 변명이 너무 길었어요.

선생님께서서는 어떠신지요. 공부가 재미있으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용기와 의욕이 부럽습니다. 저도 지난 7월에 미국에 한달정도 다녀왔습니다. 고려학회와 미시건 대학 주최로 미시건 대학에서 학술세미나를 했었거든요. 학단협(학술단체협의회)에서 10명정도 참석했고 그 일원으로 가서 논문발표도 하고 미국구경도 하고 왔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미국을 가서 직접 보니까 재미도 있었고 유익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쪽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있겠지요.

얼마전 개각때 선생님이 환경처 장관 물망에 오르내린다는 신문을 읽고 선생님 생각을 했습니다. 능력있는 여성 정치지도자가 부족한 저희 상황에서 선생님에 대한 기대는 역시 큰것 같습니다. 좋은 공부 많이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날을 기

다리겠습니다.저도 하느라고는 하고 있지만 94년에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것을
다짐해봅니다.저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교쪽이 적성에 맞는것 같습니다.그러나 자
리는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한편으로는 초조하지만 지금의 상황,상대적으로 연구시
간이 많고 자유로운 강사로서의 장점도 최대한으로 누리려고 합니다.다음학기에는
이대에서 「한국정치론」, 4학년 전공과목을 맡게 되서 기쁩니다.경희대에서 여성학도
하고요.그러면 선생님 언제 뵙게 될런지요.건강하시고 마음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
다.새해에 복많이 받으십시오.

추신: 보내드리는 책은 여성유권자연맹 프로젝트 받아서 쓴 논문들이고요(뒤에
실린 논문은 한국정치학회 회보에도 실렸습니다) 경제와 사회는 지난 10월에 손글이
늦게 나왔습니다.선생님의 좋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이 승희 드림

1994. 1. 4.

박영숙 총재님께.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가족을 잊지 않으시고 기도도 보내주시길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혹시 돌아오셨나 싶어서 며칠 전에 Cambridge로 전화를 드렸더니 돌아오시길 않음기
같아, 생각해보니 2월 말이나 3월 초쯤 돌아오신다고 하셨던 것도 같아 퍼지로나도 인사를
드려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총재님께서 N.J도 겨울은 몹시 추운 것 같은데 지내시기는 어떠신지요. 환경 문제에 관한
각 나라의 자료를 수집하신 계획이나도 많을 거 기억하는데, 날씨 같은 것 열두에 두는 만큼
항아롭고 많은 것 같군요.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으로 기도합니다.

한 보른군의 방학이 반은 party로 반은 shopping으로 정신 없이 지나가고
다시, 또다시 정신 없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고단해서 가끔
"이 나이에 영어 배워 뭘에 쓴다고 이 고생인가 그야 두자"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지난번 총재님께서 배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리선
말씀과 더 열심히 열심히 총재님 계셔도, 한국 외로운 이쪽 생활도 하시면서 활동은
하신다는 사실이 제게 큰 자극과 동기가 됩니다. 한국에 돌아가 애들(저희집)
영어 선생 보충만 한 수 있어도 보충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한국 어외비가
워낙 비싸니까 가정 경제에 도움도 되겠지요) 아직 9시 수업도 (수목) 시간까지
만 한 번의 계획도 없고 (시간을 1배 해줍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까지는
아무리 애를 써도 많이 뒤늦은 밤으로 그야말로 공과실이 레반이었는데, 이번 학기
부터는 그래도 애를 쓰지 않아도 조금은 자연스레 많이 되는 것 같아, ~~바쁘~~ 조금씩
즐거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외우고 쓰고 읽고 정답만 맞추면 되는 언어만 배운
세대여서인지 만능하게 정말 어렵다는 거 진심으로 느낍니다. tutor 얘기도
만능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랑도 총재님께서 보내주시길 통설치는 마시며 큰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보내주시길
모두 언제나 귀한 것들인지 송구스럽게까지 해서, 혹시 제가 총재님께 부담을 드리지
아닌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총재님께서 궁금해 하시던 이곳 대학의 postgraduate prospectus는
어떻게 전해 드려야 할지요. Philosophy 과정이 있습니다. 혹시 바쁘신 일과 중에
시간이 나시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간단히 연락 주십시오.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기쁨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도드리면서, 부디 건강하시고
왕성한 활동으로 한국 역사의 지위 확장에 큰 일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994. 1. 14. 금요일. 송복영 드림.

ps. 보내주신 "환경과 사회" 아주 고맙게 읽었습니다. 날땀 얘기가 환경운동가
천연가스는 대접한 광제가 갖는 분야라고 아주 화실맞아 있었는데, 워낙 많은
수업과 2등마다 취해야 하는 수업 때문에, 더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볼 수 없는 점이
아주 아쉬워하고 하더군요. 이제 상류에서도 막아이가 인간이 소비하는 산소와
양과 배준하고 환산가스의 양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들을 해서, 공기 속의 산소량이
위험에 직면한 만큼 줄어든 환산가스가 대량 많이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를 한 정도로, 환경 문제는 생과 사가 달린 문제 인것 같습니다.

총재님의 분류를 다시 한번 보면서.....

공해와의

박영숙 선생님

그 동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난번 미국에서 보내주신 편지와 자료도 잘 받았읍니다. 또 연말에 인사카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소는 선생님의 뜻을 받아들여 모두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잡지도 잘 만들고, 잘 팔리기 합니다. 영국에서 좋은 기회에 많은 공부를 하시고 귀국하여 많은 일을 해주십시오. 환경, 복지, 여성 등의 문제는 평생 매달려도 만족스럽게 해 낼 수 없는 일이겠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을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3월에는 일시 귀국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때는 뵈을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연구에 몰두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박선생님을 부러워 하면서도 박선생님은 역시 실천을 통해서 능력을 크게 발휘하셔야 할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충전의 기회를 잘 이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새해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993년 12월 28일

이 시 재

李時載

박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8일 ~ 14일 까지

독일 바이스베르트 총회 (제39차) 를 마치고

집을 꾸리면서 선생님께 안부 드립니다.

재천이와 정님씨의 가족들도

안녕 하셨습니다. 독일에서

안식년 휴가중에 있는 영숙언님과

저와 그리고 옥재 언님이 함께

참석 하였습니다. 이곳의 하늘과 산

물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Photo und Verlag E. Baumann, 8403 Winterthur / Printed in Switzerland

선생님. 잘계시니
안부 드리고. 집에서 다시
외출해 »니 인강히
계십시오.

1998. 6. 14.

김 정 란 언님 드림

김 옥재 언님 드림

영숙 언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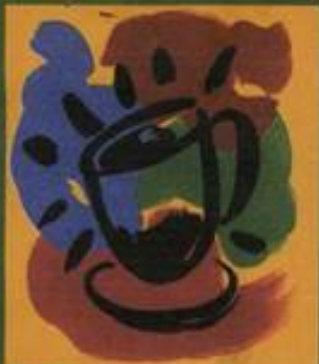
조금하는 박영숙 총재님!

개인적인 친분등 여러가지 어려운임장과
6개월 동안에 '나는 강자의 편에 서고 수는
없다' 단호히 '맞히지'고 이를 실현하지는
않았을 통해 저희에게 강우침과 용기를 주신
선생님을 잊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지고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시면서
많은 가르침 주실수 있으시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해 주실것을 믿고
기원드립니다.

2000년 10월의 날에

영남에서 선생님을 조금하는 1000분이 1이라는 단고자
노래하고 있는 이영정 자문관



1/2

박영숙 총재님께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지요?

김정임 이사님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의 친구들'에서 감사로 일하던 김혜영입니다.
지난 9월 1일에 결혼을 하고 이곳 San Jose 에
온지 한달이 되가고 있습니다. 도착해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기 시작했고
엮고제는 테이블, 의자, 찬장 등 필요한 가구들을 장만
했습니다.

이 곳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늘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총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친구들'에서의 모든 경험과 총재님을 보면서 배운
느낌, 정들, 직간접적으로 가르쳐주신 많은 것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방면에 두루 관심을 가지시는 것, 뛰어난 기억력 (동생때가
늘 많았어요), 외국어에 능통하신 것, 지도력, 판단력,
이런에 느껴지는 따뜻함과 센스...
총재님을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2/2

'사랑의 친구들' 2주년 기념 행사 이후
바자회 행사를 준비, 진행, 뒷처리 하느라
너무나 바빴음을 총재님과 '사랑의 친구들'
이 두 눈에 선합니다. 저는 비록 결혼하긴

미국으로 가게되어 '사랑의 친구들'을 떠나게 되었지만
언제나 '사랑의 친구들'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도 가끔 '사랑의 친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는
합니다. 늘 반갑고 그리워집니다.

총재님, 저의 결혼식날도 너무도 바쁘셨을텐데 안주까지
장작 놓았어요. 그 날 서둘러하고 총장님 자리에서 행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려운 반포응을 해주시고 축하해주시고,
또 멋진 총재님의 말씀을 같이 사정에 얹고 감사하듯
있게되어서 참 기쁘고 진심으로 작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재님, 늘 꼭 건강하세요. 늘 항상 건강하시길
좋은 마음만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사님도 늘 건강하시길 예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도 이 곳에서 영생히 생활하는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00. 10. 2

김영애 올림 © STUART HALL



1993. 11. 29

박 선생님께,

보내주신 우편을 잘 받았읍니다. 바쁘신日程중에도 홍익은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회화하신 硯硯所 속귀찮는 관심양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하늘 밑에 약간의 靄靄를 느꼈읍니다만, 그렇게 싱거운
정로는 아니며 곧 회복되었으니 너무 열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의 사려없는 愚見이 硯硯를 드린 것 같읍니다.

주어진 시간을 너무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젊은사람들 못지
않은 정열로 硯硯하시는 것은 보고, 모든 硯硯의 硯硯로부터
실성한 충격을 받으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在在時 하시는 硯硯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여말을 맞아 硯硯히 추석과 硯硯의 硯硯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 성 환 拜

44. 1월 4일

홍 씨에게 드림

박 선생님.

안부 듣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러나 아픈 편지 지내시는지 걱정됩니다.

새해에는 심야를 통과한 선생님의 일이 끝났어서

하시곤 하신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전 2월 16일부터 있던 데리메는 선생님을 뵈옵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건강하는 모습 밝기를 기대합니다.

최승영 아들. 신혜영 아들들도 선생님께 인부 전해달라 합니다.

✎ 저는 지금 문화일보 비상임 논설위원
 으로 1주일에 한두번씩 여성관련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
 수록 여부국임을 느낍니다.
 시배 더욱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4년 원단

조영숙 문집

박영숙 선생님

카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진국에서 환경공부 하시는 선생님이
 부럽습니다.

지난해 선생님이 정계를 떠나시겠
 다는 순식간에 맥으로 연락했더니 번
 썩 영국으로 떠나신 듯하네요.

여생을 위해서도 이 나라 민족발전을 위해
 더나 선생님과 같은 분이 정치권에서야
 한다고 생각해서 정치를 계속 하시도록
 부탁드리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나날로 선생님은 지역구에서 당원들이든
 한 기반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축하하심 명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운동에 발벗고 나설 것이라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박선생님께

선생님 그동안 많은 일을 가운데 묵혀 바쁘셨지요?
전작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도착하지 10일
만에 피나루보 재해자 돕기위한 방문이 선생님, 숙로자
중심으로 있었는데요 그곳에 갔다오면서 피나루보에 물러
그 물기가 얼얼까지 채워되어 추위성 장려목스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높은 열과 구름증, 추위, 피부색감이 빨갛게, 보라색을
쳐대의 고름을 겪었다는 생각합니다. 병원신세로 지고.
그것의 후유증이 해를 가려준도. 이제 9월 말부터 정식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왔던 곳은 IC기이라는 수녀원
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문명하고 있고, 한 나라의 안에
학교, 문화수녀원, 교회, 제 숙소건물에는 다양한 레슨의 세미나
장소도 문명되어 있습니다. 수녀님들이 제에게 잘해주시고. 복음에서
해국유색도 해 먹은수 있습니다. 해인교회에는 주석전 인도원과
주석에 나가게 되었고 주석반은 해국유색을, 잘사는 교인들이 만듦에서
꼭익하게 먹고 옷도, 어니이름의 춤 등으로 나쁜의 해수를 달래기도
하였습니다. 여말복명해다 그해일이간 새월이 1월으로 날려보내게
되어 안락함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약간의 연어수들과
해에 지역들중에 대한 수감이 있다고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등록하며 건물들을 넓혀볼까 생각하고도. 이곳의 지진이나,
타산복반은 우리나라의 홍수재해에 비교하면 다른바가 있습니다.
9기전 이곳사람들이 오직 원시적 생활에 처해있을 줄 알았을 때
금성줄로 바이론, 자가동, 피로복자로 넓리넓은 땅의 소, 등.
문치있는 집안의 장수들. 그제 일이 벌어질 뿐이기도.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은 내로것 같습니다. 가로림이 정대다수는 이국나가
해인현으로의 서양 문화에 개방적인 해인현으로 동양 문화로써
우리나라 선유적으로 존속할것. 야릇한 곳입니다.

그리고 천연이 자원은 이웃 민족들의 손에서 떠나 거의 외자에 잡혀
있고. 그래서 가뭄하에 살아야 하는 비극은 조국독립 원망해야 하나요!
그래도 우리에서 독립을 기지 천수에 대한 찬성이 나왔다는 것도 우리보다
가뭄하에 자족심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 찬사를 보았을 것이다.

현재의 국내외적 정세에 대해 거의 없었던. 동북에서 모친수가 **신민당과**
반독당이 동맹했다고 전해지는데, 장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지리적은 비산, 물산하지 말고, 목숨을 자기 국장을 흥히 굶
들며, 인정을, 지지를 받든 풍속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령이 따라, 희곡들을 흥히 연대 하도록 있는 사상의 여류가 전래
필요 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를 이치로 시립들을 보면서 우리보다
좋은 장점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꼭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리더자의 청담, 동성이 여류, 이것도 자신과 모음을 살리는 것이 아닐까요.
신사임 힘드시리라. 장로께서는 장점을 아끼지 마시고 배워야 해서
전국의 부흥으로 모국민의 희망이 기어 오를 것으로 보았습니다.

필리핀은 만약 기지가 떠나면 "수출 상품과 관광" 등 노리가 되고 있다고,
아키노는 국민독립을 해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정국 초상자들도
비국으로부터 제국비들을 받아가지고, 사모발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정치자들에 선기관 때문에 필리핀 민중들은 상관이 없고, 그들이 가진
가난과, 해방, 중산, 중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자들은 그저 입자
하나만 가지고 반대하지요. 우리가 외국, 민족의 지위를 알지 않으면
이치에 간혹하여, 다양한 경제 발전에 시도가 기어 오를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승인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지요.

제가 알고자하는 Quezon City "가난"이다. 마닐라가 워낙 크니까
미국의 시로 국수 되어 있습니다. 중심에서 30분 정도 걸리게 있지만,
ICM 수백명이 100미터에서 들어섰다고 합니다. 백지화 사람들은 많지요.
Tel 712-4849 특히 이치에 모친이 있다는 사실은 언급합니다.

건강하시고, 빨리로 장미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1991. 8. 29
이영을 드림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603-14

☎ (02) 571-5809

박 영 숙 배상

137-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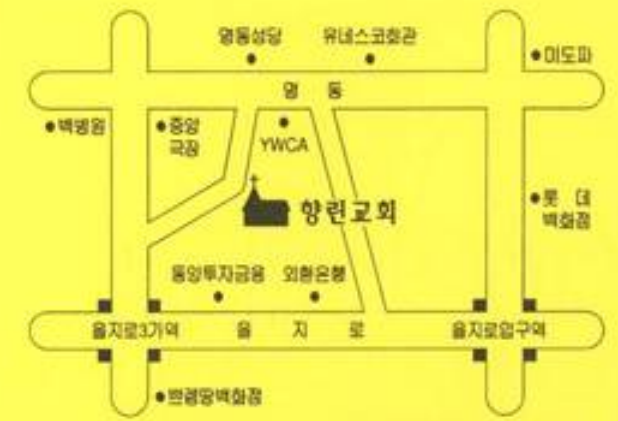
귀하

□□□-□□□

하느님의 사랑으로 만난 두 사람이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약속을 하려합니다.
 언제나 아름답고 주위에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故 안 병 무 의 장남 재 권
 박 영 숙 올림
 박 이 구 의 장녀 은 정
 고 일 심

- 일시 : 1998년 12월 26일(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 향린 교회



향린교회 ☎ 776-9141, 776-3806

- ◆ 교통 안내
- 전 차 : 2·3호선 울지로3가역 하차 (반평왕백화점 방면, 중앙극장 출구 도보로 약 10분)
- 좌석버스 : 12, 45-2, 755, 1005-1, 1005-3 (중앙극장 앞 하차)
- 일반버스 : 34, 34-1, 45, 222 (중앙극장 앞 하차)
 48, 54, 62 (울지로입구-외환은행 앞 하차)
- 주차공간이 없사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환 및 축의금은 청중헌 사당합니다.